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과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 정 민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과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

지도교수 이 강 이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 정 민

이정민의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현재 외국인거주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를 동남아시아인(이하 동남아인)에 대해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지각적 측면에서 유아가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하는 과정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범주화의 인지적 측면과 선호도의 정서적 측면을 분리해서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에 따른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도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인지발달 이론을 근거로 유아가 동남아인의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하는지 알아보고, 외모와 언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인물 자극 제시 조건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이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 단일 자극 인물 묘사 과제에서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 유사 자극 인물 묘사 과제에서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3] 대조 자극 인물 묘사 과제에서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는 외모 단서와 언어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는 외모 단서와 언어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의 근거는 외모

단서와 언어단서가 일치하는 조건과 불일치하는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는 외모 단서와 언어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1]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는 외모 단서와 언어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2]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의 근거는 외모 단서와 언어단서가 일치하는 조건과 불일치하는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 4, 5세 유아 8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을 통해 인물 사진 세트로 구성된 인물 묘사 과제와 인물 사진과 음성 자료가 Powerpoint 슬라이드로 제시되는 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 및 친구 선택 과제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에서 빈도, 백분율과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동남아인 1명의 단일 자극, 동남아인 2명의 유사 자극과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의 대조 자극의 경우에 인물을 묘사하기 위하여 인종적 신체 특징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고 일반 신체 특징이나 옷차림에 대해 적게 언급하였다.

둘째, 유아가 어떤 인물을 보고 내집단 구성원인지 판단할 때 그 인물이 사용하는 언어가 중요한 단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는 외모 단서는 일치하나 언어 단서가 일치하지 않는 인물보다는 외모 단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택하였다. 선택 근거에서도 동일한 언어 사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셋째, 유아가 어떤 인물을 보고 누구와 놀고 싶은지를 판단할 때 그 인물의 외모가 중요한 단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는 언어 단

서는 일치하나 외모 단서가 일치하지 않는 인물보다는 언어 단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외모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을 놀이 친구로 선택하였다. 선택 근거로는 외모의 매력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 연구는 동남아인에 초점을 맞추어 인종적 신체 특징의 현저함이 달라질 수 있는 단일, 유사, 대조 조건으로 인물 자극을 제시하여 각 조건에 따라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경향이 달라짐을 밝혔다. 인종에 대한 유아의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를 분리하여 살펴봄으로써 두 가지 과정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가 유아의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에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의미있는 변인임을 밝혔다.

주요어: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내집단 범주화, 선호도, 언어
학번: 2008-23222

목 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 1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 6
1. 유아의 인종에 대한 태도 발달과 사회인지발달 이론 ····· 6
1) 사회적 범주화와 인종 태도 발달 ····· 6
2) 사회인지발달 이론과 유아의 인종 태도 발달 ····· 8
2.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및 관련 요인 ····· 10
1)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의 발달 ····· 10
2)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의 발달 관련 요인 ····· 11
3. 유아의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 및 관련 요인 ····· 13
1)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 ····· 13
2)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 관련 요인 ····· 14

Ⅲ. 연구 문제 및 용어의 정의 ····· 20
1. 연구문제 ····· 20
2. 용어의 정의 ····· 21
1)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 21
2)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 21
3) 인종에 대한 선호도 ····· 22
4) 외모 단서 ····· 22
5) 언어 단서 ····· 22

Ⅳ. 연구방법 및 절차 ····· 23
1. 연구대상 ····· 23
2. 연구도구 ····· 24
1) 인물 묘사 과제 ····· 25

2) 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 ····· 29
3) 친구 선택 과제 ····· 31
3. 연구절차 ····· 32
1) 예비 조사 ····· 32
2) 본조사 ····· 35
4. 자료 분석 ····· 36

Ⅴ. 연구결과 및 해석 ····· 37
1.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 37
1) 단일 자극에 대한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 37
2) 유사 자극에 대한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 40
3) 대조 자극에 대한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 45
2.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 48
1)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른 내집단 범주화 ····· 48
2) 내집단 범주화의 근거 ····· 49
3.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 ····· 52
1)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른 선호도 ····· 52
2) 선호도의 근거 ····· 54

Ⅵ. 결론 및 논의 ····· 58
참고문헌 ····· 64
부록 ····· 74
ABSTRACT ····· 75

표 목 차

<표 Ⅳ-1> 참여 유아의 구성 ····· 24
<표 Ⅳ-2> 인물 묘사 과제 제시 절차 ····· 26
<표 Ⅳ-3> 단일 자극 조건 -유아의 응답 범주별 예시 ····· 27
<표 Ⅳ-4> 유사 및 대조 자극 조건-유사 및 차이 판단 예시 ···· 29
<표 Ⅴ-1> 한국인 1명에 대한 인물 묘사 ····· 38
<표 Ⅴ-2> 동남아인 1명에 대한 인물 묘사 ····· 39
<표 Ⅴ-3> 한국인 2명에 대한 유사 여부 판단 ····· 41
<표 Ⅴ-4> 한국인 2명에 대한 유사 판단 근거 ····· 42
<표 Ⅴ-5> 동남아인 2명에 대한 유사 여부 판단 ····· 42
<표 Ⅴ-6> 동남아인 2명에 대한 유사 판단 근거 ····· 43
<표 Ⅴ-7> 동남아인 2명에 대한 차이 판단 근거 ····· 44
<표 Ⅴ-8>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에 대한 유사 여부 판단 ··· 45
<표 Ⅴ-9>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에 대한 유사 판단 근거 ····· 46
<표 Ⅴ-10>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에 대한 차이 판단 근거 ··· 47
<표 Ⅴ-11> 내집단 범주화 경향: 유아가 한국인으로 선택한 빈도 49
<표 Ⅴ-12> 내집단 범주화의 근거 예시 ····· 50
<표 Ⅴ-13> 내집단 범주화에 대한 근거의 응답 빈도 ····· 51
<표 Ⅴ-14> 선호도의 경향: 유아가 놀이 상태로 선택한 빈도 ····· 53
<표 Ⅴ-15> 선호도의 근거 예시 ····· 54
<표 Ⅴ-16> 선호도에 대한 근거의 응답 빈도 ····· 56

그 림 목 차

<그림 Ⅳ-1> 일치 조건 과제 실행 예시 ····· 30
<그림 Ⅳ-2> 불일치 조건 과제 실행 예시 ····· 30

Ⅰ. 문제 제기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화의 추세는 경제발전 및 저출산·고령화으로 인해 외부 인구의 유입이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는 노동 인구를 송출하던 국가였으나 현재는 노동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국가로 변했으며,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에 대해서 차별과 무시의 태도를 보인다(설동훈, 1999). 한국인은 특히 중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이하 동남아인)에 대해 큰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냈다(김병조 외, 2011). 동남아인은 외모의 차이도 현저하기 때문에 더욱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다. 동남아인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및 태도 개선은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유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지식을 형성한다. 미래 사회를 책임질 유아들이 관용과 개방적인 세계관을 지닌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다양한 배경의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파악하고 규정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집단에 대한 유아의 인식 연구는 다문화·다민족 사회화의 변화가 일찍 이루어졌던 북미권 국가들에서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최근에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해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로 확대되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화는 진행 배경, 단일민족주의 사상, 유입인구가 한국에 동화되는 정도 등에서 다른 국가의 사례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한국 유아에게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생태·문화적 타당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유아의 인종에 대한 인식의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요 소수집단을 구성하는 동남아인[1]에

대한 유아의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집단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인종적 신체 특징에 대한 인식 과정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주요 소수 집단인 동남아인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인물 사진의 개수 및 제시 순서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를 분리해서 보아야 하며, 외모와 언어에 따라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는 인종 편견이 심각한 문제였던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유아 대상의 연구에서도 인종 집단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고정관념, 좋고 싫음과 같은 정서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신현경, 2007; 심완정, 2010; 이진희, 1999)도 유아가 각 인종 집단에 대해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지각적 요인을 바탕으로 유아가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하는 과정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유아가 인종 범주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가는 것은 편견의 형성보다 근본적인 과정(Alejandro-Wright, 1985)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emaj(1981) 또한 인종 선호나 태도의 발달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언제, 어떻게 인종 집단의 차이와 유사성을 인지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 유아의 인종 인식을 지각적 수준에서 살펴본 연구(이문정, 2009; 장영희·이숙재·김혜실·김정화, 1999)는 흑인, 백인과 황인의 세 인종을 유아에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종 분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서구권 국가에서 진화론이 유행하고 근대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던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형성된 것으로 부정확하

1) 전체 거주외국인 중 외국인 근로자는 43.7%, 결혼이민자는 11.2%의 비율을 차지하며, 동남아인은 외국인 근로자의 26.7%, 결혼 이민자의 29.5%, 외국인주민 자녀의 36.4%를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11).

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강철구, 2002). 인종 분류는 생물학적 관찰이 동원되지만 문화적 개념과 결합(Taylor, 2004)되기 때문에 해당 사회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남아인과 한국인은 같은 황인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저한 신체적 차이(조용진, 1999)를 보이며 사회경제적 지위도 한국인보다 낮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설동훈, 1999). 동남아인 및 이들의 자녀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에 따라 다양한 신체적·문화적 동화 수준을 보이는 후속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주요 소수집단이지만 상대적으로 연구가 소홀했던 동남아인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가 이들을 인종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유아의 인종 집단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인종별 인물 자극을 동시에 제시하고 인종 명칭에 맞는 인물을 고르거나 분류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진이 제시되는 순서나 비교 가능한 대상의 존재 유무에 따라 인종 특징의 현저함이 지각되는 수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Guerrero(2006)의 연구에서 백인-흑인 순서로 인물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보다 흑인-백인 순서로 제시하였을 때, 유아들이 인종적 신체 특징에 대해 언급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Semaj(1981) 또한 같은 인종의 인물 2명을 제시한 경우보다 다른 인종의 인물 2명을 제시한 경우에 인종적 신체 특징에 대한 인식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제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의 인식을 세부 조건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 맥락을 고려할 때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종 태도 연구에서 내집단 범주화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사회화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미국, 캐나다와 같은 북미권 국가들의 경우 다양한 인종 집단으로 국가가 구성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단일민족으로 오랜 기간 지내다가 최근 20년간 이민자가 급증했기 때

문에 사람들의 인식은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단일민족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다양한 문화 및 지리적 배경 출신의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의 일부를 이루고 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가 만연하다(설동훈, 1999).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인에 대해 한국 유아들이 내집단으로 인식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들은 내집단 구성원을 보다 긍정적으로 여기며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한국인에게 내집단으로 수용된다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종 집단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정서적 태도는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지적(Signorella, Bigler & Liben, 1993)과 같이 이들에 대한 범주화와 선호도는 별개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동남아인을 유아가 내집단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선호도의 측면에서는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

한국 사회의 동남아인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아시아권에서 이주하여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동화되는 정도가 높다. 동화 수준에 따라서 이들의 자녀는 외모 및 언어에서 다양한 변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외모 및 언어 조건에 따라서 한국 유아에게 집단으로 범주화되고 선호되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결혼이민자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 유아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서현・이승은, 2007; 윤정진・차미영, 2010)에 따르면 외모가 다르거나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다는 점이 놀림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내집단으로 수용되는 결과도 있었다. 외모와 언어 조건에 따라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의 차이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동남아인이 한국 유아에게 수용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서로가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상대로 인식하는 것과 연결되며,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이 동남아인의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하는지 살펴보고, 한국인 및 동남아인의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에 따라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에 대한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앞서 제기된 문제에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인종에 대한 태도 발달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인종적 신체특징에 대한 인식의 발달 양상 및 관련된 과제 변수를 살펴보고,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 발달의 양상 및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아의 인종에 대한 태도와 사회인지발달 이론

1) 사회적 범주화와 인종 태도 발달

범주화는 일련의 특질이나 특성의 집합을 통해 한 범주를 정의하는 과정이다(Markman, 1989). 범주화는 복잡한 일상의 경험을 묶음으로 만들어 단순화하여 사람들이 사건에 적응하게 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도록 한다.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 범주의 도움으로 사건을 일반화하고 유형화한다(Allport, 1958). 범주화는 경험을 부호화하고 주어진 정보를 넘어서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지적 행위의 기본이 된다(신현정, 2000).

사회적 범주화는 사회적 세계를 구분되는 범주나 부류로 나누는 것을 말하며, 한 개인을 범주에 포함시킬지 제외시킬지를 체계적으로 결정한다(Turner, 1972). 사물지각과 대인지각 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범주화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범주화와 질적으로 다르다. Fiske와 Taylor(1984)에 따르면 사람은 의도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가하며 이면을 지각할 수 있다. 사물에 비해서 사람은 관찰이 불가능한 내면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물에 대한 인지와 인간에 대한 인

지는 다른 속성을 바탕으로 한다.

유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범주화를 사용한다. 범주화는 유아가 환경을 단순화하고 기억 부담을 덜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인출하도록 한다(Bruner, Goodnow & Austin, 1958). 사회적 세계에 대한 범주적인 인식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나타난다. 예를 들어 청각 지각의 측면에서 신생아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보다 엄마의 목소리를 더 잘 인식한다(DeCasper & Fifer, 1980). 시각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태어난 지 사흘째인 신생아는 낯선 여성의 얼굴보다 어머니의 얼굴을 더 선호했다(Walton, Bower & Bower, 1992). 3개월 영아는 같은 인종 집단 구성원의 얼굴을 다른 집단 구성원의 얼굴보다 잘 인식한다(Sangrigoli & Schonen, 2004).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아는 사회적 세계에서 자신에게 친숙한 것과 낯선 것을 구분하고 의미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된다.

인종은 성별, 연령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적 범주이다(Kinzler, Shutts, & Correll, 2010). 19세기 이후에는 구분 가능한 신체 특징을 지니는 백인종(caucasoid), 흑인종(negroid)과 황인종(mongoloid)의 세 가지로 인종을 분류하고 이들이 기후 조건에 따른 적응 과정에서 형성된 군집이라고 보는 관점이 유행하였으나, 이 방법은 부정확하고 자의적이며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강철구, 2002). 예를 들어 흑인종의 경우 흑인 간에 다양한 신체적 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단일 인종으로 보는 관점이 팽배했던 것은 노예제도라는 사회적 요인 때문이었다(Hirschfeld, 1998). 인종은 Loveman(1999)의 지적과 같이 인종화된 사회 집단으로 이해해야 하며, 해당 사회 내에서 여러 인종 집단 간의 역동을 살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유아의 인종 집단에 대한 태도 연구들은 해당 사회에 존재하는 주류 인종집단과 소수 인종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캐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Aboud(2003)의 연구는 유아가 어떤 인종에 속하는지를 질문하면서 보기로 백인 캐

나다인, 흑인 캐나다인과 캐나다 원주민을 제시하였다. 스페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페인인, 중국인, 라틴아메리카인과 집시로 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에 대한 유아의 태도를 살펴보았다(Enesco, Navarro, Paradela & Guerrero, 2005).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집단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동남아인에 대한 유아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남아인은 어두운 피부색, 큰 눈과 쌍꺼풀 및 작은 체구의 특징을 지닌다(조용진, 1999)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인에 속하는 한국인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구분된다. 사회적 상황으로는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에서 한국으로 온다는 점에서 차별과 부정적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고 있다(설동훈, 1999).

Hirschfeld(1998)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타인의 외양을 기반으로 해서 내면의 속성에 대한 추론을 하기 때문에 인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주가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같은 인종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여기며, 여러 인종 집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태도란 경험을 통해 조직되는 심리적, 중립적 표상으로 행동에 직접적 또는 역동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된다(Breckler & Higgins, 1989).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태도의 삼원 이론은 태도가 인지, 정서와 행동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태도의 삼원이론은 사회 심리학 초기부터 연구에 적용되었다(Breckler, 1984). 태도의 삼원이론에 따르면 인종 집단에 대한 태도는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 요인 측면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2) 사회인지발달 이론과 유아의 인종 태도 발달

유아의 인종 인식에 대한 사회인지발달 이론(Aboud, 1988)에 따르면 집단에 대한 유아의 태도는 지각 및 인지 발달과 상관이 있다. 유아는 정서-지각 과정을 통해 낯선 것을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에

대해 애착을 가지게 된다. 이 때 물리적 특징이 자신과 유사한 내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아는 다중 범주화를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보인다. 이러한 편견은 7세 경에 최고조에 달하며, 이후로 구체적 조작 사고가 가능해져 차이를 집단보다는 개인적인 것으로 대할 수 있게 되면서 감소한다.

신피아제 학파의 관점에서는 익숙한 지각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 구분 및 선호에서 나아가, 범주에 대해서 유아가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서 '사자'에 대한 개념을 획득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자의 외형적 특징을 알고 구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자의 물리적이고 행동적인 속성이 유전적 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이고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한다(Diesendruck & haLevi, 2006). 이와 같이 특정 범주에 대한 본질적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심리학적 본질주의(Gelman, 2003)로 설명되었다. 심리학적 본질주의 관점에서 유아가 인간 집단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생김새나 행동과 같은 피상적 차이에 주목하는 인지 과정이 아니다. 집단에 대한 이해는 각 집단에 내포된 사회적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심리학적 본질주의 입장에서 사회적 범주화는 추론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민족 범주는 한 개인이 속한 집합체의 속성, 특질과 역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이상의 것이다(Hirschfeld, 1995).

이상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 유아가 신체적 차이를 기준으로 동남아인 또래를 사회적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유아가 동남아인 또래를 외집단으로 분류한다면 이들에 대한 태도나 행동요인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적 본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아가 사회적 범주화에서 집단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기준은 지각적 단서에 제한되지 않는다. 유아는 집단에 내포된 본질적 속성에 주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유아가 동남

아인 또래를 자신과 같은 집단 구성원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내집단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및 관련 요인

1)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의 발달

인종 인식(racial awareness)은 '인종 범주간의 시각적 차이와 사람들이 이러한 구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각적 단서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Porter, 1971). 인종 인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전통적인 Clark의 인형 검사에서는 흑인과 백인 인형을 유아에게 제시하고 "백인(흑인) 인형을 줘보세요."라고 지시하는 방식(Clark & Clark, 1939; Ibid., 1940)을 사용했다. 이 방식은 인형이 실제 사회적 세계의 인종의 표상물이라기보다는 유아가 조작할 수 있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Aboud, 1988)는 지적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형 대신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이 중에 백인(흑인)은 누구인가요?"와 같이 동일한 질문으로 유아의 인종 인식을 살펴보았다(Guerrero, 2006). 이와 같은 측정 방식은 '흑인', '백인' 등과 같은 인종 명칭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인종 명칭을 사용하여 인종 인식을 측정 방식은 Jahoda(196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종의 시각적 차이를 깨닫는지에 대한 지각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 및 언어적 요인이 포함된 인종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동남아인 집단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단어로 '다문화가정[2)]이 있지만 유아의 수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준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용어이다. 인종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종적 신체 특성에 대한 지각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인종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유아에게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인 분류를 해 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Alejandro-Wright, 1985)이 제기되었다. 무의식적인 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종, 성별, 옷 색상 등 사회적 범주화의 기준이 될 만한 요인이 조합된 인물 사진 세트를 유아에게 제공하고 서로 닮은 것끼리 분류하도록 했을 때 유아가 인종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이 사용되었다(Guerrero, Enesco, & Lam, 2011; Lam, Guerrero, Damree & Enesco., 2011; Ramsey, 1991; Ramsey & Myers, 1990; Semaj, 1981).

인종적 신체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범주화는 인종적 신체 특성의 지각과는 다르다. 인종에 따른 범주화는 사회적으로 내포된 의미에 대한 이해가 포함(Gurrero et al., 2011)되기 때문에 지각적 수준 이상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Semaj(1981)와 Alejandro-Wright(1985)의 지적과 같이 인종적 유사성이나 차이에 대한 지각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조건을 지각적인 수준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인물 묘사 과제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은 인종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유아가 인종을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아에게 인물 사진을 제시하고 “이 사진은 무엇에 대한 것이니?”라고 질문하였을 때 유아가 인물을 묘사하기 위하여 인종 관련 특징을 언급하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Semaj, 1981; Guerrero et al., 2011).

2)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의 발달 관련 요인

인종적 신체 특징은 제시되는 인물 자극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

다. Semaj(1981)의 연구에서 흑인 유아 2명의 사진을 제시한 경우보다 흑인과 백인 유아 각각 1명씩의 사진을 제시한 경우에 민족 표현형 특징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Guerrero(2006)의 연구에서도 인물 사진을 백인-흑인 순서로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보다 흑인-백인 순서로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 인종적 신체 특징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인종 내집단 또는 외집단 인물 자극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비해 동일한 내집단 구성원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 유사성에 대한 지각이 활성화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인물 자극의 종류 및 개수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유아가 인물 자극을 단독으로 보는 과제 조건과 한 인물 자극이 다른 인종 집단의 인물과 대조되는 과제 조건에 따라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집단 동질성 효과(out-group homogeneity effect)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집단 인물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한다(Brauer, 2001). 유아에게 동남아인을 인종 외집단으로 보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면 한국인과 동남아인에 대한 유사 여부 판단 시에 동남아인 간의 유사성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이 인식은 지각적 정보가 입력된 이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나, 유사성 인식을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들의 일반화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차이 인식보다 어렵다(Markman, 1989). 유아에게 두 개의 인물 자극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을 때 인물 간의 유사성 수준 및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응답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인종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의 얼굴 인식을 내집단 또는 외집단 구성원이 단일로 제시되는 조건, 내집단 또는 외집단 구성원이 2명씩 제시되는 조건과 내집단 구성원과 외집단 구성원이 각각 1명씩 구성되는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유아의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 및 관련요인

1)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

내집단은 집단 구성원들이 '우리'라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집단(Allport, 1958)을, 외집단은 내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을 지칭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범주화 과정을 통해 유아는 '우리'로 표현되는 내집단과 '그들'로 표현되는 외집단을 구분하여 인식한다. 범주화는 인지적 과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류된 집단에 대해 유아가 특정 정서 및 행동요인을 갖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 속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와 외집단 편견(out-group prejudice)을 형성한다(Billig & Tajfel, 1972).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 형성은 다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유아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신의 집단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며 그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유아가 내집단을 선호한다고 하여 반드시 외집단을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Enesco, Guerrero, Callejas, & Solbes, 2008).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에게는 주류 집단인 한국 또래에게 그들과 같은 집단, 즉 내집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내집단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내집단 범주화 연구에서 개념 형성과 같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분리해야 한다(Signorella et al., 1993). 선행연구는 유아가 사회적 집단을 의식하고 범주화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선호도와 같은 정서적 요인을 사용하여 태도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 및 행동요인 측면을 혼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범주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종적 신체 특징, 성별, 언어 등이 다른 여러 인물 자극을 유아에게 제시하고 누구와 놀고 싶은

지를 물어보는 방식을 사용했다(Kinzler, Dupoux, & Spelke, 2007; Shutts, Kinzler, McKee & Spelke, 2009). 지각 또는 인지적 입력이 없더라도 정서적 반응이 가능(Zajonc, 1980)하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인지적 분류 과정과 감정 및 행동요인의 과정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호도(preference)는 특정 사회적 집단 또는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Guerrero, 2006; Kinzler et al., 2007)로, 사회적 범주화의 정서적 측면이다.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선호도는 정서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아에게 일련의 인물 자극을 제시하고 "누구와 함께 놀고 싶니?"라는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Guerrero, 2006, Kinzler et al., 2009). 선호도는 인지적 차원의 범주화처럼 익숙함과 낯섦에 영향을 받는다(Cameron, Alvarez, Ruble & Fuligni, 2001). 유아는 자신과 닮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Aboud & Amato, 2003). 어린 아기들도 친숙한 사물을 선호한다. 따라서 유아가 친숙한 내집단 구성원을 보다 선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친구 선택은 정서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내집단 구성원 범주화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가령 또래 선호도는 신체적 매력, 사회성, 운동 능력 등의 영향을 받는다(Zakin, 1983).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범주화에서 내집단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2)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 관련 요인

사회적 범주화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할 때 친숙함과 낯섦이 주요 단서가 된다(Cameron et al., 2001). 유아는 사회적 집단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이 특정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지각하면서 집단 간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인다. 유아는 자신과 닮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Aboud & Amato, 2003). 유아의 집단 구분 및 선호도에서 친숙함과 낯섦이 주요 단서가 되는 이유는, 친숙함이 자연 및 사회 세계에 대한 탐색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Cameron et al., 2001). 유아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을 친숙하게 여긴다.

친숙함과 낯섦의 구분은 지각적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대방의 얼굴과 발화에 담긴 정보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Campanella & Belin, 2007)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외모와 언어가 사회적 범주화와 선호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한국 유아의 태도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유아는 다문화 유아의 외모가 다르거나 언어가 서툰 경우 이를 인지했고 다른 반응을 보였다(서현・이승은, 2007; 윤정진・차미영, 2010). 외모나 언어의 차이가 집단 구분 및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외모나 언어 중 어떤 단서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음에서는 집단 범주화와 관련된 지각적 요인을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로 나누어 유아의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외모 단서에 따른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

외모는 성별, 연령, 인종적 신체 특징과 매력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시각적 단서이다(Langlois & Down, 1979). 유아의 사회적 범주화에서 성별, 연령, 민족 표현형 특징 등이 중요한 구분 기준(Kinzler et al., 2010)이므로 사회적 범주화가 외모 단서의 영향을 받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사회 집단에 대한 분류는 시각적 단서에 의해 시작된다. 유아의 개념은 시각적으로 구체적이며 시각 정보에 기반을 갖추고 있다(Bar-Tal, 1996). 유아는 피부색, 얼굴 생김새, 신체 구조, 의복 등과 같은 시각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범주화를 한다(Stangor & Lange, 1994).

시각적인 기준은 어린 시기부터 사용된다(Aboud & Amato, 2003; Ramsey & Myers, 1990).

외모로 나타나는 시각 단서에서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성별, 민족, 표정, 매력도 등을 들 수 있다. 유아는 자신과 같은 성별의 또래를 놀이 친구로 선호한다(Freniere, Strayer, & Gauthier, 1984). 유아는 자신과 같은 인종인 인물을 선호한다(Singleton & Asher, 1977). 유아는 인물 자극이 화난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주의를 기울인다(Ackerman et al., 2006). 신생아는 외모가 매력적인 인물을 선호한다(Langlois, Ritter, Roggman, & Vaughn, 1991). 유아도 상대방에 대해 지각한 외모의 매력 수준에 따라 행동이 달라졌다(Langlois & Downs, 1979). 이 연구에서는 외모 단서를 한국인과 동남아인 간의 인종적 신체 특징의 차이로 한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성별, 표정, 매력도는 동일한 수준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2) 언어 단서에 따른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

언어는 사회적 집단의 분류에서 외모 단서보다 늦게 사용된다(Bar-Tal, 1996). 언어가 사회 집단 범주화에서 중요하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먼저 사회인지 발달 관점에서 언어는 상징적 표상의 주된 기제이기 때문에 집단 범주화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랍인'이라는 말은 한 사회적 집단을 상징화하므로 유아는 '아랍'이라는 말을 들을 때 특정 집단과 그 단어를 연상하게 된다(Stangor & Lange, 1994). Fiedler와 Schmid(2003) 또한 언어가 상징 체계이기 때문에 사회 집단 분류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언어가 집단에 대한 명칭을 부여한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집단 분류에 중요하다.

언어는 상징 및 표상의 도구 이상으로 작용한다. 심리학적 본질주의 입장에서 언어는 집단의 존재론적 속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집단 범주화에 중요하다. 즉 언어가 사회적 집단 범주화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서로 다른 언어의 대비에서 오는 감각적 요인의 차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Hirschfeld와 Gelman(1997)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는 언어와 사회 집단이 연결되는 것에 대해 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집단에 대한 존재론적인 측면을 이해한다.

최근에는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도 언어가 사회적 범주화에서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고대의 부족 집단들은 표현형(phenotype)으로 나타나는 신체 특징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언어나 억양이 달랐으며 이것이 집단 구성원 소속감을 구분하는 좋은 단서였다(Kurzban, Tooby, & Cosmides, 2001). 이에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가 범주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살펴보려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유아가 사회적 세계의 구분에서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경험적 결과(Kinzler et al., 2007; Shutts et al., 2009)가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언어는 집단 구성원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는 도구이다. 언어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집단 정체성으로 연결된다. 언어를 통해 공유된 경험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공유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Heller, 1987).

이상의 내용을 통해 언어 단서는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에서 중요하며, 그 이유는 집단 표상의 상징기제, 집단의 본질적 속성, 상호작용 수단 등으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 단서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에 따른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

내집단 범주화에서 유아는 자신과 유사한 외모를 지니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물을 내집단 구성원으로 분류하지만,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 중에 무엇에 더 의존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약 유

아가 외모 단서가 내집단 범주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유아는 제시된 인물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나 외모는 자신과 유사한 경우, 그 인물을 내집단 구성원으로 분류할 것이다. 반면 언어 단서가 유아에게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면 제시된 인물의 외모는 다르더라도 사용하는 언어가 자신과 유사하면 내집단 구성원으로 분류될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 다문화사회화의 역사가 긴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유아는 외모 단서보다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경우 내집단이라고 인식하거나 선호하였다(Kinzler et al., 2010). 그러나 한국 사회의 경우 외모 단서가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인종 사회에서는 유아가 인종적 신체 특징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외모는 다르더라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 같은 국가 구성원이라고 인식된다. 그러나 한국은 인종적 신체 특징이 동질적인 형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다른 민족 집단 구성원의 신체적 차이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될 수 있다. 유아는 인종적 신체 특징이 현저하게 다른 사람을 내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아가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호도의 양상도 내집단 범주화의 양상과 비슷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모 단서를 보다 중요한 구분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외모와 닮은 인물을 선호할 것이다. 언어 단서가 중요한 구분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물을 선호할 것이다.

인지적 수준에서 집단 구성원을 구분하는 과정과 정서 및 행동 수준에서 어떤 집단을 선호하는 과정은 서로 다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유아의 내집단 범주화 경향을 살피기 위하여 “이 중에 누가 우리나라 사람 같니?” 라고 묻는 경우, 외모 단서나 언어 단서에서 한국적인 요인이 있으면 유아가 인물을 한국 사람으로 분류하기

에 충분할 수 있다. 선호도 경향을 살피기 위하여 “이 중에 누구와 놀고 싶니?” 라고 묻는 경우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또한 고려해야 한다. 또래수용과 관련된 요인은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인지적 능력, 부모의 양육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각 자료에서 관찰 가능한 것에 한정해서 보면 얼굴의 매력을 들 수 있다. 유아는 낯설지만 외모가 매력적인 또래와는 잠재적으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응답했으나 낯설고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은 또래와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Dion, 1973). 외모의 매력은 또래 선호도를 결정할 때 인종적 신체 특징보다 더 강력한 요인이라는 결과도 있다(Langlois & Stephan, 1977). 유아에게 제시하는 인물 자극의 외모 단서에서 외모의 매력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비슷한 매력도를 가진 인물 사진을 선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외모 단서를 한국인과 동남아인의 인종적 신체 특징을 나타내는 사진으로 제한하고, 사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 외모 요인인 외모의 매력, 연령, 성별, 표정 등은 통제하기로 한다. 언어 단서로는 한국어와 영어 발화 자료를 사용하되 발화 내용이나 속도 등은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이러한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에 따라 유아의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는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에 따른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인물 자극 제시 조건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이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 단일 자극 인물 묘사 과제에서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유사 자극 인물 묘사 과제에서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3] 대조 자극 인물 묘사 과제에서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는 외모 단서와 언어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는 외모 단서와 언어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의 근거는 외모 단서와 언어단서가 일치하는 조건과 불일치하는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는 외모 단서와 언어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1]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는 외모 단서와 언어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2]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의 근거는 외모 단서와 언어단서가 일치하는 조건과 불일치하는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용어의 정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및 사회적 선호도 관련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인종 인식은 인종적 특징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을 지칭한다(Guerrero, 2006).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유아가 인물의 인종적 신체 특성을 인식하고 언급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동남아인에 한정해서 살펴보며, 이에 따라 인종에 따른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유아에게 한국인 또는 동남아인의 인물 사진 자극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인물에 대해 묘사하도록 하였을 때 인종적 신체 특징(피부색 및 민족 집단 관련 용어)을 언급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2)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사회적 범주화는 사회적 세계를 구분되는 범주나 부류로 나누는 것을 지칭하며 체계적으로 한 개인을 범주에 포함시킬지 제외시킬

지를 결정한다(Turner, 1982). 내집단은 집단 구성원들이 '우리'라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집단(Allport, 1958)을 일컫는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동남아인에 한정하여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를 살펴본다. 이에 따라 인종에 따른 내집단 범주화는 유아가 한국인과 동남아인의 인물 사진 자극 중에서 한국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인종에 대한 선호도

선호도는 사회적 범주화에 수반되는 정서적 측면으로, 한 사회적 집단 또는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칭한다(Guerrero, 2006; Kinzler et al., 2007).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동남아인에 한정하여 인종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며, 이에 따라 인종에 따른 선호도는 유아가 한국인과 동남아인의 인물 사진 자극 중에서 놀이 상대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외모 단서

외모 단서는 시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의 신체적 특징을 지칭한다. 이 연구에서 외모 단서는 연령, 성별, 신체적 매력을 통제한 한국인과 동남아인의 사진을 의미한다.

5) 언어 단서

언어 단서는 청각을 통해 입력되는 인물의 발화를 지칭한다. 이 연구에서 언어 단서는 연령, 성별, 발화의 높낮이 및 속도를 통제한 한국어와 영어 인사말의 발화 자료를 의미한다.

Ⅳ.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문제에 맞는 연구 대상 및 연구 도구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6곳의 만 3, 4, 5세 학급의 유아 8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시설은 다문화아동으로 등록된 원아가 없어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환경에 있었다.[3)]

다문화사회화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3-4세부터 피부색과 다른 인종적 신체 특징을 지각하기 시작한다고 보고하였다(Aboud, 1988; Katz, 1981; Porter, 1971). 비교적 최근에 다문화가 진행되고 있는 스페인과 영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5세경 부터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한다고 하였다(Guerrero et al., 2011; Lam et al., 2011). 이러한 결과를 통해 3-5세의 시기에 유아가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하며 이에 따른 범주화와 선호도의 태도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연령의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참여 유아의 연령 및 성별 구성은 <표 Ⅳ-1>에 제시하였다.

<표 Ⅳ-1>를 살펴보면 전체 89명 중 3세 30명(남아 13명), 4세

3) 사회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집단에 대한 범주화는 유아의 인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여 유아의 인지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Inhelder, Sinclair & Bovet1974)의 자료를 응용한 Guerrero(2006)의 도형 분류 과제를 실시하여 논리적 분류를 1회 이상 수행한 유아만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20명이 제외되어 최종 89명이 되었다.

31명(남아 14명), 5세 28명(남아 13명)으로 구성되었다. 3세의 평균 월령은 54.4개월(표준편차 3.60), 4세의 평균 월령은 65.7개월(표준편차 4.04), 5세의 평균 월령은 77.1개월(표준편차 3.76)으로 나타났다.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를 살펴본 연구문제 2번 및 3번의 경우 예비 분석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한 집단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일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는 42명(남아 21명)이었고 평균 월령은 66.2개월(표준편차 9.76)이었다. 불일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는 47명(남아 19명)이었고 평균 월령은 64.6개월(표준편차 10.16)이었다.

<표 Ⅳ-1> 참여 유아의 구성

단위: 명(%)

변인			평균월령[4] (표준편차)	남아	여아	계
연구 문제1	연령	3세	54.4(3.60)	13(43.3)	17(56.7)	30(33.7)
		4세	65.7(4.04)	14(45.2)	17(54.8)	31(34.8)
		5세	77.1(3.76)	13(46.4)	15(53.6)	28(31.5)
		전체		40(44.9)	49(55.1)	89(100.0)
연구 문제 2, 3	과제 유형	일치 조건	66.2(9.76)	21(50.0)	21(50.0)	42(47.2)
		불일치 조건	64.6(10.16)	19(40.4)	28(59.6)	47(52.8)
		계		40(44.9)	49(55.1)	89(100.0)

2. 연구도구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물 묘사 과제를 실시하였다.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수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 인종에 대한 선호도 측정을 위해 친구

4) 조사 시점이 학기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아가 생일이 지나 학급 연령보다 1세 많은 경향을 보였다.

선택 과제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 절차 및 측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물 묘사 과제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련의 사진 자극을 사용한 인물 묘사 과제를 실시하였다. 인물을 묘사할 때 유아가 인종적 신체 특징을 언급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Semaj(1981)의 도구를 수정·사용하였다. Semaj(1981)는 유아가 상반신 인물 사진을 보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의 과제를 단일, 유사 및 대조의 세 가지 조건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단일 자극 조건은 백인 유아와 흑인 유아의 사진을 한 번에 한 장씩 보여주며, “이 사진은 무엇에 대한 것이니?”라고 질문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유사 자극 조건은 흑인 남아 두 명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같니?”라고 질문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대조 자극 조건에서는 흑인 남아와 백인 여아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다르니?”라고 질문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Semaj(1981)의 도구 중 백인과 흑인의 구성을 한국인과 동남아인의 구성으로 바꾸었다. 단일 자극 조건은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 유사 자극 조건은 한국인 2명과 동남아인 2명, 대조 자극 조건은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인물이 2명씩 제시되는 유사 자극과 대조 자극의 조건에서는 인물 간에 서로 닮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사용된 인물 자극은 모두 유아 사진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아용 사진 4매와 남아용 사진 4매, 총 8매였다. 과제의 제시 순서 및 세부 사항은 <표 Ⅳ-2>에 제시하였다.

<표 Ⅳ-2> 인물 묘사 과제 제시 절차

구분	유아 성별	자극	질문 1	질문 2
단일 자극 1	남	한국 남아 1명	“이 사진의 친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사진에서 무엇이 보여요?.”	-
	여	한국 여아 1명		
단일 자극 2	남	동남아 남아 1명	“이 사진의 친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사진에서 무엇이 보여요?.”	-
	여	동남아 여아 1명		
유사 자극 1	남	한국 남아 2명	“이 두 친구들은 서로 닮았어요? 아니면 닮지 않았어요?”	“어떤 점이 닮았어요(닮지 않았어요?)“
	여	한국 여아 2명		
유사 자극 2	남	동남아 남아 2명	“이 두 친구들은 서로 닮았어요? 아니면 닮지 않았어요?”	“어떤 점이 닮았어요/닮지 않았어요?“
	여	동남아 여아 2명		
대조 자극	남	동남아 여아와 한국 남아	“이 두 친구들은 서로 닮았어요? 아니면 닮지 않았어요?”	“어떤 점이 닮았어요/닮지 않았어요?“
	여	동남아 남아와 한국 여아		

(1) 단순 자극 조건

단순 자극 조건 과제는 참여 유아가 한국인 1명을 보고 질문에 답하기와 동남아인 1명을 보고 질문에 답하기로 이루어졌다. 사진 자극의 성별은 참여 유아의 성별과 동일하게 하였다. 각각의 사진에 대해서 유아에게 “이 사진을 잘 보고, 사진에 있는 친구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 해 주세요.”라고 개방식 묘사를 요청하였다. 유아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진의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해주세요.”라고 유도 질문을 하였다.

각 조건별 과제에 대한 유아의 응답을 분류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Guerrero et al., 2011; Lam et al., 2011; Ramsey & Myers,

1990; Semaj, 1981)를 참고하여 범주를 구성하였다. 범주는 일반 신체특징(머리카락, 눈, 코, 입 등), 인종적 신체 특징(피부색), 옷, 성별, 기타(표정, 인물 평가 등)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항목별 응답의 예시는 <표 Ⅳ-3>에 제시하였다.

<표 Ⅳ-3> 단일자극 조건- 유아의 응답 범주별 예시

항목	설명	예시
일반 신체특징	신체부분	입 벌리고 있어요, 귀가 뾰족해요, 코에 점이 있어요, 눈썹이 있어요
	머리카락	머리가 길어요, 머리띠 했어요, 머리가 뽀글뽀글해요, 머리를 묶었어요, 앞머리가 있어요
인종적 신체 특징	피부색	얼굴이 하얘요, 살이 까매요, 피부가 검어요
	민족집단	한국 사람 같아요, 아프리카 색이예요
옷	색상	옷이 빨강색이예요, 하얀 옷이 보여요
	구성요소	옷에 끈이 달렸어요, 여름 옷이예요
성별		남자 같아요
기타	외모평가	예뻐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멋있는 사람이예요, 착해보여요
	표정	웃고 있어요
	무응답	잘 모르겠어요

전체 참여 유아의 응답 중 각 범주별로 응답된 빈도와 비율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6세 유아 36명 중에 동남아인 사진 1매를 보고 묘사하기 과제에서 1개 항목 이상을 사용하여 응답한 유아는 26명이었고 그 중에 인종적 신체 특징에 대해 언급한 유아는 15명이었다. 이에 빈도 15건과, 26명에 대한 15명이 차지하는 비율 58.8%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2) 유사 자극 조건

유사 자극 조건 과제는 한국인 2명을 보고 질문 및 답하기와 동남아인 2명을 보고 질문 및 답하기로 이루어졌다. 단순 자극 조건과 달리 질문은 “이 두 명의 친구는 서로 닮았어요? 아니면 닮지 않았어요?”와 “어떤 점이 닮았어요(닮지 않았어요)?”의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사진 자극의 유아 성별은 참여 유아의 성별과 동일하게 하였다.

유아의 인물에 대한 유사 여부 판단은 “닮았다”와 “닮지 않았다”로 나누어 기록하고, 각 응답의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유사 여부 판단의 근거는 단순 자극 조건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일반 신체특징(머리카락, 눈, 코, 입 등), 인종적 신체특징(피부색), 옷, 성별, 기타(표정, 인물 평가 등)의 다섯 개의 범주로 기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한 빈도 및 백분율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항목별 응답의 예시는 <표 Ⅳ-4>에 제시하였다.

(3) 대조 자극 조건

대조 자극 조건은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을 동시에 제시하고 질문 및 답하기로 이루어졌다. 참여 유아가 남아인 경우에는 한국 남아 사진과 동남아 여아 사진을 제시하였고, 참여 유아가 여아인 경우에는 한국 여아 사진과 동남아 남아 사진을 제시하였다. 대조 자극 조건 과제는 유사 자극 조건과 동일하게 “이 두 명의 친구는 서로 닮았어요? 아니면 닮지 않았어요?”와 “어떤 점이 닮았어요(닮지 않았어요)?”의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유아의 인물에 대한 유사 여부 판단 및 판단 근거에 대한 응답은 유사 자극 조건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된 빈도 및 백분율 자료를 사용하였다. 판단 근거의 항목별 예시는 <표 Ⅳ-4>에 제시하였다.

<표 Ⅳ-4> 유사 및 대조 자극 조건-유사 및 차이 판단 예시

항목	설명	예시
닮음	일반 신체특징	눈, 귀가 닮았어요
	인종적 신체특징	얼굴이 검은색이예요
	옷	흰색 티셔츠가 닮았어요
	성별	여자예요
	기타	무응답
닮지 않음	일반 신체특징	코가 안 닮았어요
	인종적 신체특징	얼굴이 검고 하얗고 한 것이 달라요
	옷	하얀 옷에 꽃이 달려있고, 여기는 안 달려있어요
	성별	남자, 여자예요
	기타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웃고 있어요

2) 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를 외모 및 언어 단서에 따라 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범주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진과 음성 자료로 구성한 과제를 사용한 연구(Hirschfeld & Gelman, 1997; Kinzler, Shutts, DeJesus, & Spelke, 2009)의 도구를 참고로 하였다. 외모 단서로는 유아에게 친숙한 외모의 한국인 사진과 친숙하지 않은 외모의 동남아인 사진을 사용하였다. 언어 단서로는 참여 유아의 모국어인 한국어와, 유아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외국어인 영어로 녹음된 발화 자료를 사용하였다.

과제는 Microsoft Powerpoin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조건(이하 일치 조건)과,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가 일치하지 않는 조건(이하 불일치 조건)의 두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일치 조건은 한국인 사진에서 한국어 발화 자료가 나오도록 하고 동남아인 사진에서는 영어 발화 자료가 나오도록 하였다. 불일치 조건은 한국인 사진에서는 영어 발화 자료가 나오도록 하고 동남아인 사진에서는 한국어 발화 자료가 나오도록 하였다. 외모 및 언어 단서로 사용한 사진과 발화 자료의 성별은 참여 대상 유아의 성별과 일치하게 하였다. 과제에 사용된 자료는 성별로 한국인과 동남아인 사진 1장씩 총 4장과 성별로 한국어와 영어 발화 자료 1개씩 총 4개였다. 사진의 크기는 6cm×8cm였고 발화 자료는 6-7초의 길이로 되어 있었다.

<그림 Ⅳ-1> 일치 조건 과제 실행 예시

<그림 Ⅳ-2> 불일치 조건 과제 실행 예시

역균형화 처리에 따라 유아는 일치 조건 또는 불일치 조건 중 한 가지 과제에만 참여하였다. 과제는 10인치 휴대용 컴퓨터 화면에 한국인과 동남아인 사진이 제시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이제부터 여기 있는 친구들이 생긴 것을 보고, 또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나서 어느 친구가 우리나라 사람인지 생각대로 얘기해주세요.”라고 안내하여 유아가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에 대해 동일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이 친구(한국 인물의 사진을 가리키며)를 잘 보고, 말하는 것을 잘 들어 보세요”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동남아 인물의 사진을 가리키며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음성 자료를 들려주었다. 순서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참여 유아가 바뀔 때마다 한국인-동남아인과 동남아인-한국인 순서로 번갈아가며 제시하였다.

한국인과 동남아인이 참여 유아에게 각각 내집단으로 선택된 총 빈도 및 비율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는 42명(남아 21명), 불일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는 47명(남아 19명)이었다. 한국인과 동남아인이 참여 유아에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택될 수 있는 빈도의 범위는 일치 조건에서 0-47건, 불일치 조건에서 0-42건이었다.

이어서 “왜 그 친구가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라고 질문하였다. 유아의 인물 선택 근거는 ‘동일한 언어 사용’, ‘동일한 외모’, ‘외모의 매력’, ‘영어에 대한 동경심’, ‘기타’의 다섯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항목별 응답 빈도와 비율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친구 선택 과제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친구 선택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 과제는 앞서 내집단 범주화를 위해 사용하였던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아가 내집단 범주화 및 근거에 대해 응답을 마친 후, 연구자는 곧바로 “○○이는 두 명 중에 누구와 함께 놀고 싶어

요? 한 명과 논다면 어느 친구와 놀고 싶어요?”라고 질문하였다. 한국인과 동남아인이 참여 유아에게 각각 놀이 상대로 선택된 총 빈도 및 비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일치 조건에서는 무응답 또는 다중 선택한 5명을 제외하고 37명(남아 18명)의 응답이 최종 사용되었으므로 한국인과 동남아인이 참여 유아에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택될 수 있는 빈도의 범위는 0-37건이었다. 불일치 조건에서는 무응답 또는 다중 선택한 3명을 제외하고 44명(남아 19명)의 응답이 최종 사용되었으므로, 각 인물이 참여 유아에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택될 수 있는 빈도의 범위는 0-44건이었다.

이어서 유아의 선택에 대한 근거를 묻기 위하여 “왜 그 친구와 놀고 싶어요?”라고 질문하였다. 유아의 인물 선택 근거는 ‘동일한 언어 사용’, ‘동일한 외모’, ‘외모의 매력’, ‘영어에 대한 동경심’, ‘기타’의 다섯 범주로 분류되었다. 각 항목별 응답 빈도와 비율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이 연구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는 적합한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를 선정하고, 선정된 외모 및 언어 단서 자료로 구성한 과제를 유아가 수행하는 수준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본조사를 수행하였다.

1) 예비조사

인물 자극으로 사용할 사진 선정을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사진 평정을 실시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인물 묘사 과제, 우리나라사람 찾기 과제와 친구 선택 과제에 사용할 사진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국인, 동남아인, 백인 및 흑

인 유아의 상반신 사진을 각각 20매씩 총 80매를 수집하였다. Tropp & Wright(2003)이 사용한 인물 사진 평정 방법을 참고하여 성인 10명에게 각 인물 사진에 대해서 평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평정의 기준은 사진의 명확성(선명함-보통-흐림), 인물의 성별(남성-여성-모르겠음), 표정(웃음-무표정-화남), 외모의 매력도(잘생김/예쁨-보통-못생김), 인종적 신체 특징(한국인-동남아인-백인-흑인-모르겠음)의 다섯 가지였다. 각 평정 항목에서 평정자 10인이 전원 일치하는 의견을 보인 사진을 최종 선택하였다. 선택된 사진은 인종적 신체 특징별 및 성별로 1매씩 총 8매였다.

선택된 사진 속 인물의 인종적 신체 특징을 유아가 인지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2세와 4세 유아 총 4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에게 인종 및 성별 유아 사진 8매를 보여주며 “이 중에서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보세요.”라고 개방식 범주화 질문을 하였다. 유아의 분류가 끝나면 “이번에는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아보세요.”의 질문으로 인종을 기준으로 하는 지시된 범주화를 유도하였다. 유아의 분류가 끝나면 “이번에는 남자친구끼리, 여자친구끼리 모아보세요”의 질문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지시된 범주화를 유도하였다. 인종 집단의 경우 개방식 범주화와 지시된 범주화에서 2세 유아와 4세 유아 모두 수행율이 저조했다. Aboud(1988)에 따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종 인식 연구에서 인종 집단의 개수가 유아의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4개의 인종 집단이 2세와 4세 유아의 수행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인과 동남아인의 2개 집단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세의 경우 대부분 과제 수행을 어려워 하여 참여 유아의 연령을 3세부터 5세까지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언어 자극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 국적의 대학생들에게 모국어로 녹음을 부탁하였다. 녹음된 문장은 “안녕? 만나서 반가워.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였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인도네시아어 총 7개 언

어로 녹음되었다.

각 외국어 자료에 대한 유아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3세 유아 12명(남아 3명)과 5세 유아 15명(남아 7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에게 “지금부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 말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라고 지시한 다음 녹음된 7개 언어의 문장을 유아에게 들려주었다.

언어에 대한 유아의 인지도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유아의 85.2%(3세 75%, 5세 93.3%)가 한국어를 인식하였다. 영어의 경우 전체 유아의 59.3%(3세 41.7%, 5세 73.3%)가 인식하였다. 일본어는 그 다음으로 높은 46.7%의 인식률을 보였으나 이는 한 학급에서 당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주제탐구 표현활동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예외 현상으로 판단하였다. 기타 언어에 대한 인식률은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어와 영어를 발화 자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남아인의 경우 해당 모국어로 말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들이 한국에서 보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이며, 유아에게도 영어가 외국어로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영어를 한국어와 대조되는 외국어 자극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어와 영어 자극을 유아 인물 사진에 맞는 유아 음성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한국어가 모국어인 유아와 영어가 모국어인 유아를 성별대로 1명씩 총 4명을 선정하여 유아의 모국어로 녹음을 부탁하였다. 녹음된 문장은 성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안녕? 만나서 반가워.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였다. CoolEdit 2.1 P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녹음된 파일의 잡음을 제거하고 말하는 속도와 높낮이를 통일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언어와 성별로 총 4개의 mp3 파일을 얻었다.

Microsoft Powerpoint 프로그램에서 사진 및 음성 자료를 배치하여 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 및 친구선택 과제를 제작하였다. 참여

유아의 성별과 일치하는 한국인과 동남아 인물 사진을 1매씩 화면에 배치하였다. 일치 조건의 경우 한국 인물에는 한국어 발화 자료를 배치하고 동남아 인물에는 영어 발화 자료를 배치하였다. 불일치 조건의 경우 이와 반대로 한국 인물에 영어 발화 자료를 배치하고 동남아 인물에 한국어 발화 자료를 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시각-언어 단서 과제에 대한 유아의 수행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3세 및 5세 유아 27명을 대상으로 3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3세 유아 1명만 응답을 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26명의 유아는 원활하게 응답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12년 1월 11일부터 18일 사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6곳에서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유아는 실내의 조용한 장소에 입실하여 연구자와 일대일 면접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앞으로 제시될 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다음 정해진 지시문에 따라 과제를 시행하였다. 먼저 분류 관련 인지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하학적 도형 분류 과제를 실시하였고, 우리나라사람 찾기 과제와 친구 선택 과제를 차례로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서 연구자는 유아의 응답을 바로 결과표에 표시하였으며, 기록이 끝난 뒤 다음 과제를 제시하였다. 유아 1인당 총 소요된 시간은 5-10분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입력 전에 인물 묘사 과제에서 유아가 기술한 내용과 우리나라 사람 선택 과제 및 친구 선택 과제에서 유아가 응답한 판단 근거가 해당 범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각 과제 별로 응답 사례를 무작위로 15개를 추출하여 아동학 전공자 2인에게 평정을 의뢰한 뒤, 평정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과제 별로 평정자간 일치도는 95.6%-97.3%

였다. 평정자 간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토의한 후 최종 항목을 선정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가 외모 및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의 근거는 빈도, 백분율 및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Ⅴ. 연구결과 및 해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서 관련 선행연구와의 일관성 여부 및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1.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결과를 단일, 유사 및 대조 자극의 조건 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일 자극에 대한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인물 묘사 과제 중 단일 자극 조건에서 한국인 사진 1매를 제시하며 “이 사진의 친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사진에서 무엇이 보여요?”라고 질문했을 때 전체 유아 89명 중 78명(87.6%)이 응답 항목에 속하는 내용을 1건 이상 언급하였다. 3세 4명, 4세 6명과 5세 1명, 총 11명은 인물 사진을 보고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유아가 2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아의 전체 수보다 응답 항목의 수가 많다. 유아가 인물을 묘사할 때 각 항목이 사용된 빈도와 비율은 <표 Ⅴ-1>에 정리되어 있다.

<표 Ⅴ-1>과 같이 유아가 한국인 1명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전체 항목 중에서 인종적 신체 특징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았을 때 0%-7.4%의 범위로 나타났다. 3세의 0%, 4세의 0%, 5세의 7.4%가 인물을 묘사하기 위하여 인종적 신체 특징을 언급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인종적 신체 특징 이외의 항목이 언급된 빈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가장 언급 빈도가 높은 항목은 기타(예: 표정, 외모 평가 등)로 81.5%-92.0%의 범위에 있었다. 두 번째로 언급

빈도가 높은 항목은 일반 신체특징(예: 머리카락, 눈, 코, 입 등)으로 74.1%-80.8%의 범위에 있었다. 세 번째는 옷으로 14.8%-23.1%의 범위에 있었다.

<표 Ⅴ-1> 한국인 1명에 대한 인물 묘사

단위: 명(%)

연령	사진의 인물을 기술하기 위하여 유아가 사용한 항목				
	일반 신체 특징	옷	인종적 신체 특징	성별	기타
3세	21(80.8)	6(23.1)	0(0.0)	0(0.0)	22(84.6)
4세	20(80.0)	4(16.0)	0(0.0)	0(0.0)	23(92.0)
5세	20(74.1)	4(14.8)	2(7.4)	0(0.0)	22(81.5)
계	61(78.2)	14(17.9)	2(2.6)	0(0.0)	67(85.9)
전체	78(100.0)	78(100.0)	78(100.0)	78(100.0)	78(100.0)
χ^2 (*df*)	.42(2)	.71(2)	3.88(2)	-	1.24(2)

단일 자극 조건에서 동남아인 사진 1매를 제시하고 “이 사진의 친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사진에서 무엇이 보여요?”라고 질문했을 때 전체 유아 89명 중 82명(92.1%)이 응답 항목에 속하는 내용을 1건 이상 언급하였다. 3세 5명, 4세 3명과 5세 2명, 총 10명은 인물 사진을 보고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유아가 2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아의 전체 수보다 응답 항목의 수가 많다. 유아가 인물을 묘사할 때 각 항목이 사용된 빈도와 비율은 <표 Ⅴ-2>에 정리되어 있다.

유아가 동남아인 1명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전체 항목 중에서 인종적 신체 특징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았을 때 11.1%-57.7%의 범위로 나타났다. 3세의 11.1%, 4세의 34.5%, 5세의 57.7%가 인물을 묘사하기 위하여 인종적 신체 특징을 언급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다(χ^2=12.78, *df*=2, p<.01).

인종적 신체 특징을 포함하여 인물 묘사의 전체 항목이 언급된 빈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는 일반 신체특징(59.3%), 옷(37.0%), 인종적 신체 특징(11.1%)의 순서로 언급 빈도가 높았다. 4세는 일반 신체특징(44.8%), 인종적 신체 특징(34.5%), 옷(17.2%)의 순서로 언급 빈도가 높았다. 5세는 인종적 신체 특징(57.7%), 옷(34.6%), 일반 신체특징(26.9%)의 순서로 언급 빈도가 높았다. 연령 집단에 따라 언급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인종적 신체 특징(χ^2=12.78, df=2, p<.01)이었다.

<표 Ⅴ-2> 동남아인 1명에 대한 인물 묘사

단위: 명(%)

연령	사진의 인물을 기술하기 위하여 유아가 사용한 항목				
	일반 신체 특징	옷	인종적 신체 특징	성별	기타
3세	16(59.3)	10(37.0)	3(11.1)	1(3.7)	1(3.7)
4세	13(44.8)	5(17.2)	10(34.5)	0(0.0)	4(13.8)
5세	7(26.9)	9(34.6)	15(57.7)	0(0.0)	2(7.7)
계	36(43.9)	24(29.3)	28(34.1)	1(1.2)	7(8.5)
전체	82(100.0)	82(100.0)	82(100.0)	82(100.0)	82(100.0)
χ^2 (df)	5.64(2)	3.17(2)	12.78(2)**	2.06(2)	1.86(2)

** p<.01

이상 단일 자극 조건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유아들은 인물 자극의 종류와 연령에 따라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1명에 대한 묘사에서 유아가 인종적 신체 특징을 언급한 비율은 0.0%-7.4%의 범위에 그친 반면 동남아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11.1%-57.7%였다. 동남아인 1명에 대한 묘사에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종적 신체 특징을 언급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인종 집단의 인물 자극을 볼 때 인종적 신체 특징

의 인식이 현저해진다는 결과(Guerrero, 2006; Semaj, 1981)와 일치한다.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종적 신체 특징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이문정, 2009; Guerrero et al., 2011; Lam et al., 2011)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물 자극으로 한국인과 동남아인 두 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3-4개의 인종 인물 사진을 사용한 선행연구보다 도구적 측면에서 인종의 현저함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5세가 되어서야 인종적 신체 특징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인물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고 분류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씩 개별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문정(2009)의 결과에서는 5세 유아의 78.8%가 황인, 흑인과 백인을 모두 인식했으나 이 연구에서는 5세 유아의 57.7%가 동남아인의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했다. 동남아인과 한국인(동북아인)이 황인종의 하위범주이기 때문에 구분이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되나 이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인물 자극의 개수와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인종 인식 및 태도 형성의 사회인지 발달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2) 유사 자극에 대한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유사 자극 조건에서는 한국인 2명과 동남아인 2명의 사진을 각각 유아에게 보여주고 “이 두 명의 친구는 서로 닮았어요? 아니면 닮지 않았어요?”라고 질문하여 인물 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다. 이어서 “어디가 닮았어요(닮지 않았어요)?”라고 질문하여 유사 판단의 근거를 응답하게 하였다.

한국인 2명의 사진을 유아에게 제시하고 유사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을 때 전체 유아 89명 모두가 두 인물이 서로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를 대답할 수 있었다. 유아의 응답은 <표 Ⅴ-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닮지 않았다는 응답(58.8%)이 닮았다는 응답(41.2%)보다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연령 집단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표 Ⅴ-3> 한국인 2명에 대한 유사 여부 판단

단위: 명(%)

연령	한국인 2명		소계
	닮음	닮지 않음	
3세	12(40.0)	18(60.0)	30(33.7)
4세	11(35.5)	20(64.5)	31(34.8)
5세	13(46.4)	15(53.6)	28(31.5)
계	36(40.4)	53(59.6)	89(100.0)

유아의 인물 간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해서 “어디가 닮았어요(닮지 않았어요)?”라고 판단의 근거를 질문하였을 때 유아들이 응답한 내용은 <표 Ⅴ-4>에 정리하였다.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연령 집단별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제시하였다. 앞서 유사 또는 차이 판단에 응답하였던 89명 중 85명(95.5%)이 판단 이유를 1건 이상 대답할 수 있었다. 일부 유아가 응답한 이유가 2개 이상 항목에 해당(예: “옷이 다르고 피부색도 달라요”)하였기 때문에 유아가 제시한 이유의 총 건수는 유아의 전체 수보다 많다.

<표 Ⅴ-4>를 살펴보면 한국인 2명이 닮았다고 한 경우에 닮음의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된 항목은 일반 신체 특징(88.9%), 옷(13.9%), 인종적 신체 특징(2.8%)의 순서로 나타났다. 두 인물이 닮지 않았다고 대답한 경우에도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된 항목은 일반 신체특징(68.6%), 옷(31.4%), 인종적 신체 특징(3.9%)의 순서였다.

<표 Ⅴ-4> 한국인 2명에 대한 유사 판단 근거

단위: 명(%)

	닮았다	닮지 않았다	계
응답 빈도	35(41.2)	50(58.8)	85(100.0)
판단 이유			
일반 신체특징	32(88.9)	35(68.6)	67(77.0)
옷	5(13.9)	16(31.4)	21(24.1)
인종적 신체 특징	1(2.8)	1(3.9)	3(3.4)
성별	0(0.0)	0(0.0)	0(0.0)
기타	0(0.0)	1(2.0)	1(1.1)

동남아 인물 2명의 사진을 유아에게 제시하고 유사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을 때 전체 유아 89명 중 88명(98.9%)이 두 인물에 대해서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를 대답할 수 있었다. 연령집단에 따라 두 인물의 유사 또는 차이 판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높은 연령집단으로 갈수록 두 인물이 닮았다는 응답이 증가했다(χ^2=6.64, df=2, p<.05.).

<표 Ⅴ-5> 동남아인 2명에 대한 유사 여부 판단

단위: 명(%)

연령	동남아인 2명		소계
	닮음	닮지 않음	
3세	8(27.6)	21(72.4)	29(33.0)
4세	12(38.7)	19(61.3)	31(35.2)
5세	17(50.7)	11(39.3)	28(31.8)
계	37(42.0)	51(58.0)	88(100.0)

유아의 유사 또는 차이 판단에 대해서 “어디가 닮았어요(닮지 않았어요)?”라고 판단의 근거를 질문하였을 때 유아들이 응답한 내용

은 <표 Ⅴ-6>에 정리하였다. 앞서 유사 또는 차이 판단에 응답하였던 88명 중 86명(97.7%)이 판단 이유를 1건 이상 대답할 수 있었다. 일부 유아가 응답한 이유가 2개 이상 항목에 해당(예: “옷이 다르고 피부색도 달라요”)하였기 때문에 유아가 제시한 이유 건수(39건)는 유아의 수(36명)보다 많다.

<표 Ⅴ-6>을 살펴보면 동남아인 2명이 닮았다고 한 경우에 닮음의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된 항목은 일반 신체특징(61.1%), 인종적 신체 특징(25.0%), 옷(22.2%)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인종적 신체 특징의 언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5.00, df=2, p<.01). 3, 4세 유아는 전혀 인종적 신체 특징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5세 유아는 9명이 언급하였다.

<표 Ⅴ-6> 동남아인 2명에 대한 유사 판단 근거

단위: 명(%)

	닮았다				$\chi^2(df)$
연령	3세	4세	5세	계	
응답 빈도	8	12	16	36	
판단 이유					
일반 신체특징	5(62.5)	9(75.0)	8(50.0)	22(61.1)	1.81(2)
옷	3(37.5)	3(25.0)	2(12.5)	8(22.2)	2.01(2)
인종적 신체 특징	0(0.0)	0(0.0)	9(25.0)	9(25.0)	15.00(2)**
성별	0(0.0)	0(0.0)	0(0.0)	0(0.0)	-
기타	0(0.0)	0(0.0)	0(0.0)	0(0.0)	-

** p<.01

동남아인 2명이 닮지 않았다고 판단한 유아들의 응답 근거는 <표 Ⅴ-7>과 같다. 차이의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된 항목은 일반 신체특징(42.0%), 옷(36.0%), 인종적 신체 특징(24.0%)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인종적 신체 특징의 언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6.60, df=2, p<.05).

<표 V-7> 동남아인 2명에 대한 차이 판단 근거

	닮지 않았다				
연령	3세	4세	5세	계	$\chi^2(df)$
응답 빈도	20	19	11	50	
판단 이유					
일반 신체특징	9(45.0)	7(36.8)	5(45.5)	21(42.0)	.07(2)
옷	11(55.0)	5(26.3)	2(18.2)	18(36.0)	5.42(2)
인종적 신체 특징	1(5.0)	7(36.8)	4(36.4)	12(24.0)	6.60(2)*
성별	0(0.0)	1(5.3)	0(0.0)	1(2.0)	1.67(2)
기타	0(0.0)	2(10.5)	0(0.0)	2(4.0)	3.40(2)

* $p<.05$

이상의 결과를 통해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사 판단 여부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 인물이 유사하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차이 판단은 지각적인 요인의 비교만으로 가능하나 유사성 판단을 위해서는 지각된 요인들 간의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사성 판단이 보다 어렵다(Semaj, 1981)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유사 여부의 판단 근거로 인종적 신체 특징을 사용하는 경향에 차이가 있었다. 동남아인 2명이 닮았다고 응답한 경우, 유아가 판단 근거로 인종적 신체 특징을 언급하는 비율은 3, 4세에서 0%였으나 5세에는 25%로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외집단에 대한 동질성 효과'의 개념과 같은 맥락이다. 사람들은 내집단보다 외집단에 대해서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을 크게 인식한다(Bartsch, & Judd, 1993; Mullen & Hu, 1989; Park & Rothbart, 1982). 이 연구에서는 5세 유아의 25%가 인종적 신체 특징을 근거로 동남아 인물 2명이 닮았다고 하여, 이들이 인종적 신체 특징을 기준으로 동남아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남아인 2명이 닮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인종적 신체 특징의 언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유아의 연령 증가에 따라 동남아인에 대한 인종 개념의 획득된다고만 볼 수는 없다. 동남아인 2명에 대해 인종적 신체 특징을 근거로 닮지 않았다는 응답은 4세와 5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차이보다 유사에 대한 인식이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종적 특징을 근거로 하여 인물들이 닮지 않았다는 응답이 4, 5세에서 나타나고, 닮았다는 응답은 5세에 나타나는 발달적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3) 대조 자극에 대한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대조 자극 조건에서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의 사진을 동시에 참여 유아에게 보여주고 인물 간의 유사 또는 차이 여부를 판단하게 한 결과를 <표 Ⅴ-8>에 제시하였다.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의 사진을 유아에게 제시하고 유사 또는 차이에 대해 판단하게 하였을 때 전체 유아 89명 모두 두 인물에 대해서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를 대답할 수 있었다. 연령집단에 따라 두 인물의 유사 또는 차이 판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7.15, df=2, p<.05.). 두 인물이 닮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세 30.0%, 5세 10.7%, 4세 6.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8>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에 대한 유사 여부 판단

단위: 명(%)

연령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		소계
	닮음	닮지 않음	
3세	9(30.0)	21(70.0)	30(33.7)
4세	2(6.5)	29(93.5)	31(34.8)
5세	3(10.7)	25(89.3)	28(31.5)
계	14(15.7)	75(84.3)	89(100.0)

“어디가 닮았어요(닮지 않았어요)?”라고 유아의 유사 여부 판단의 근거를 질문하였을 때 유아들이 응답한 내용은 <표 Ⅴ-9>에 정리하였다. 유사 또는 차이 판단에 응답하였던 75명 중 74명(98.7%)이 판단 이유를 1건 이상 대답할 수 있었다. 일부 유아가 응답한 이유가 2개 이상 항목에 해당(예: “옷이 다르고 피부색도 달라요”)하였기 때문에 유아가 제시한 이유의 총 건수(83건)는 유아의 전체 수(74건)보다 많다.

<표 Ⅴ-9>을 살펴보면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이 서로 닮았다고 한 경우에 닮음의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된 항목은 일반 신체특징(92.9%)과 옷(7.1%)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응답 근거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Ⅴ-9>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에 대한 유사 판단 근거

단위: 명(%)

	닮았다				$\chi^2(df)$
연령	3세	4세	5세	계	
응답 빈도	9	2	3	14	
판단 이유					
일반 신체특징	8(88.9)	2(100.0)	3(100.0)	13(92.9)	.60(2)
옷	1(11.1)	0(0.0)	0(0.0)	1(7.1)	.60(2)
인종적 신체 특징	0(0.0)	0(0.0)	0(0.0)	0(0.0)	-
성별	0(0.0)	0(0.0)	0(0.0)	0(0.0)	-
기타	0(0.0)	0(0.0)	0(0.0)	0(0.0)	-

<표 Ⅴ-10>을 살펴보면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이 닮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차이의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된 항목은 일반 신체특징(50.0%), 옷(29.7%), 인종적 신체 특징(20.0%) 순서였다. 연령에 따라 언급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옷(χ^2=8.38, df=2, p<.05)과 인종적 신체 특징(χ^2=11.27, df=2, p<.01)이었다. 높은 연령 집단으로 갈수록 옷에 대한 언급은 줄어들고 인종적 신체 특

징에 대한 언급은 증가했다.

<표 Ⅴ-10>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에 대한 차이 판단 근거

단위: 명(%)

	닮지 않았다				$\chi^2(df)$
연령	3세	4세	5세	계	
응답 빈도	20	29	25	74	
판단 이유					
일반 신체특징	10(50.0)	14(48.3)	13(52.0)	37(50.0)	.07(2)
옷	11(50.0)	6(27.3)	5(22.7)	22(29.7)	8.38(2)*
인종적 신체 특징	0(0.0)	5(17.2)	10(40.0)	15(20.3)	11.27(2)**
성별	0(0.0)	3(10.3)	4(16.0)	7(9.5)	3.37(2)
기타	0(0.0)	1(3.6)	1(4.0)	2(2.7)	.79(2)

* $p<.05$, ** $p<.01$

대조 자극 조건에서는 인종적 신체 특징과 성별이 대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인물이 닮지 않았다는 근거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항목은 일반 신체 특징과 옷으로 나타났다. 유아는 외모의 전반적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Guerrero et al., 2010; Lam et al., 2010)와 일치한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옷에 대한 언급은 줄고 인종적 신체 특징에 대한 언급은 증가하였다. Guerrero(2006)의 결과에서 4세 유아의 61.5%, 5세 유아의 78.5%가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한 것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4세 유아 17.2%, 5세 유아의 40.0%로, 낮은 편이었다.

인물 자극의 종류 및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의 차이가 유의했다. 대조 자극 조건은 유사 자극 조건보다 인종적 신체 특성이 현저하기 때문에 4세 유아들에게서도 인종적 신체 특징을 근거로 한 차이 판단이 나타났다. 유사 자극 조건에서는 인종적 신체 특성을 근거로 유사하다고 응답한 사례가 5세 미만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 대조된다. 측정 도구 면에서 인물 자극간의

현저함이 증가할 때 인종 인식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Aboud, 1988)는 맥락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조 자극 조건에서는 인종적 신체 특징뿐만 아니라 성별도 대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대한 언급은 낮은 편이다. Guerrero(2006)의 연구에서 3, 4, 5세 유아의 100%가 성별을 언급한 것에 비해 이 결과에서는 3세 0%, 4세 10.3%, 5세 16.0%가 성별을 언급하였다. 성별의 언급 빈도가 이 연구에서 낮게 나타난 것은 언어의 문법 체계 특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Guerrero(2006)의 연구 대상인 스페인 유아는 문법적 성 체계를 가지고 있는 로망스계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 유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물을 묘사하면서 성별 관련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다고 사료된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통해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과제의 특수성, 유아의 연령과 같은 인지적 또는 개인 내적인 성숙 요인뿐만 아니라 언어 및 문화권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2.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아의 내집단 범주화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인물 선택 과제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른 내집단 범주화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61.09 df=1, p<.001). <표 Ⅴ-11>를 보면 일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 42명 중 41명(97.6%)이 한국인 외모와 한국어 발화 조합의 유아 인물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택하였다. 불일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 47명 중

40명(85.1%)이 동남아인 외모와 한국어 발화 조합의 인물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택하였다. 7명(14.9%)이 한국인 외모와 영어 발화 조합의 인물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택했다.

<표 Ⅴ-11> 내집단 범주화 경향: 유아가 한국인으로 선택한 빈도

구분	한국인	동남아인	χ^2 (*df*)
	n(%)	*n*(%)	
일치 조건	41(97.6)	1(2.4)	61.09 (1)***
불일치 조건	7(14.9)	40(85.1)	

*** $p<.001$

위의 결과는 유아는 친숙한 외모와 언어를 기반으로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를 수행하며, 외모 단서보다는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을 내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치 조건에서 유아의 대부분이 한국인 외모에 한국어로 말하는 인물을 내집단으로 선택한 결과는 내집단이 친숙한 사람들로 구성(Allport, 1958)되며 유아가 자신에게 친숙한 것을 선호한다(Aboud & Amato, 2003)는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불일치 조건에서 유아가 외모 단서보다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을 내집단으로 범주화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언어가 사회적 범주를 파악하기 좋은 요인(Hirschfeld & Gelman, 1997)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얼굴과 같은 외모 단서는 음색, 어조 등의 언어적 요인보다 주의집중을 잘 받는다(Blanck et al., 1981)는 결과로 미루어볼 때, 사회적 범주화는 현저한 지각적 요인에 따른 분류보다는 어떠한 요인이 사회적 범주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유아의 이해를 수반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2) 내집단 범주화의 근거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의 근거는 <표 Ⅴ-12>와 같이 '동일한 언어 사용', '동일한 외모', '외모의 매력', '영어에 대한 동경심' 및 '기타'의 다섯 가지로 정리되었다.

<표 Ⅴ-12> 내집단 범주화의 근거 예시

항목	설명	예시
동일한 언어 사용	동일한 언어 사용	"말이 한국사람 말이니까요." "한국말을 하니까."
동일한 외모	인종적 신체 특징	"얼굴 색이 같으니까." "얼굴이 하얗고 한국사람 같아요."
외모의 매력	외모의 매력에 대한 평가	"예쁘니까요."
영어에 대한 동경심	영어나 외국에 대한 동경심	"영어로 말했어요."
기타		"그냥요" "많이 웃어가지고요."

내집단 범주화의 근거에 대한 유아의 응답 양상은 <표 Ⅴ-13>와 같다. 일치 조건 과제에 참여한 유아가 응답한 범주화 수행의 근거는 범주화 양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5.00 df=4, p<.001). 일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 42명 중 41명(97.6%)이 한국인 사진과 한국어 음성 자료를 배치한 조합을 내집단으로 선택하였다. 범주화의 근거를 살펴보면 동일한 언어 사용이 8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인물 자극이 유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집단으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동일한 외모(11.8%), 외모의 매력(2.9%), 기타(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인 사진과 영어 음성 자료를 배치한 조합을 내집단으로 선택한 유아는 1명(2.4%)이었고, 영어에 대한 동경심을 범주화의 근거로 응답하였다.

불일치 조건 과제에 참여한 유아가 응답한 범주화 수행의 근거 또한 범주화 양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

^{2}=14.73, *df*=3, *p*<.01). 이 과제에 참여한 유아 47명 중 40명(85.1%)이 동남아인 사진과 한국어 음성 자료를 배치한 조합을 내집단으로 선택하였다. 범주화의 근거를 살펴보면 동일한 언어 사용이 8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인물 자극이 유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집단으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동일한 외모(6.5%), 기타(6.5%), 외모의 매력(3.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사진과 영어 음성 자료를 배치한 조합을 내집단으로 선택한 유아는 7명(14.9%)이었다. 범주화의 근거를 살펴보면 동일한 외모가 42.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인물 자극이 유아와 같은 외모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내집단으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은 외모의 매력(28.5%), 기타(14.3%), 동일한 언어 사용(14.3%) 순서로 나타났다.

<표 Ⅴ-13> 내집단 범주화에 대한 근거의 응답 빈도

	일치 조건		불일치 조건	
선택	내집단외모+ 내집단언어	외집단외모+ 외집단언어	내집단외모+ 외집단언어	외집단외모+ 내집단언어
선택 빈도	41(97.6)	1(2.4)	7(14.9)	40(85.1)
선택 근거				
동일한 언어 사용	28(82.4)	0(0.0)	1(14.3)	26(83.8)
동일한 외모	4(11.8)	0(0.0)	3(42.9)	2(6.5)
외모의 매력	1(2.9)	0(0.0)	2(28.5)	1(3.2)
영어에 대한 동경심	0(0.0)	1(100.0)	0(0.0)	0(0.0)
기타	1(2.9)	0(0.0)	1(14.3)	2(6.5)
계	34 (100.0)	1 (100.0)	7 (100.0)	31 (100.0)
χ^2 (df)	35.00 (4)***		14.73 (3)**	

** *p*<.01, *** *p*<.001

유아가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에서 언어 단서를 판단 기준으로 보는 근거는 동일한 언어 사용을 통한 소속감 공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국가별로 언어가 다름을 인지한다(Jahoda, 1963)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Jahoda(1963)의 연구는 6세 이상의 구체적 조작기 아동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보다 어린 유아 또한 집단 소속감에서 언어의 공유가 중요하다고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 유아가 언어 집단 소속감이 개인의 정체성에서 결정적이라고 인식했다는 연구(Kiznler & Dautel, 2012)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유아의 내집단 범주화는 지각 요인을 바탕으로 한 사물 범주화와 달리 사회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는 과정이며 사회적 세계에서 언어가 집단 구분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인물 선택 과제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른 선호도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른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의 결과는 <표 Ⅴ-14>와 같다. 유아의 선호도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6.30 df=1, p<.001). 일치 조건 과제에 참여한 유아 37명 중 35명(94.6%)이 한국 인물을 함께 놀고 싶은 친구로 선택하였다. 불일치 조건 과제에 참여한 유아 44명 중에서는 24명(54.5%)이 한국 인물을 함께 놀고 싶은 친구로 선택하였다.

<표 Ⅴ-14> 선호도의 경향: 유아가 놀이 상태로 선택한 빈도

구분	한국인	동남아인	$\chi^2(df)$
	n(%)	n(%)	
일치 조건	35(94.6)	2(5.4)	16.30(1)***
불일치 조건	24(54.5)	20(45.5)	

*** $p<.001$

일치 조건에서 유아가 한국인 외모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물을 놀이 상대로 선택한 것은, 유아가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Aboud & Amato, 2003; Allport, 1958)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불일치 조건에서 유아가 언어 단서보다 외모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을 놀이 상대로 선호한 결과는 주류 집단의 유아가 자신과 같은 인종의 또래와 노는 빈도가 높았다는 연구(Ramsey & Myers, 1990)와 같은 맥락이다. 인종 측면에서 동질적인 환경에 있는 주류 인종 집단 유아가 인종 편견의 수준이 높았다(McGlothlin & Killen, 2006)는 결과와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인종 집단 간의 접촉이 편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McGlothlin & Killen, 2010)는 설명과 같이, 이 연구의 참여 유아는 동남아인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친숙한 한국인 외모의 인물을 선호했다고 볼 수 있다.

불일치 조건에서도 외모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이 선택된 비율이 유의하게 높지만,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이 선택된 비율도 45.5%로, 일치 조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물의 외모 단서가 유아의 내집단의 것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언어가 일치하면 놀이 상대로 선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같은 인종이지만 언어가 다른 또래보다는, 인종이 다르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또래를 선호했다는 연구(Kinzler et al., 2009)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는 외모 단서

의 영향을 받지만, 언어 단서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볼 때, 동남아 유아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또래에게 수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선호도의 근거

인종에 대한 선호도의 근거는 내집단 범주화의 근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언어 사용', '동일한 외모', '외모의 매력', '영어에 대한 동경심' 및 '기타'의 다섯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각 항목별 예시는 <표 Ⅴ-15>와 같다.

<표 Ⅴ-15> 선호도의 근거 예시

항목	설명	예시
동일한 언어 사용	동일한 언어 사용 및 의사소통 가능성	"한국말을 하니까 말이 통해요." "(저는) 영어를 조금밖에 못해요."
동일한 외모	피부색을 기반으로 한 외모 차이	"얼굴이 하야니까요." "얼굴이 까만 친구는 무서워요."
외모의 매력	외모의 매력에 대한 평가	"머리띠 해서요." "예쁘니까요.", "멋져서요."
영어에 대한 동경심	영어나 외국에 대한 동경심	"외국 사람 만난 적 없어서 같이 놀고 싶어요." "영어 가르쳐줄 수 있으니깐."
기타		"너무 사랑해서요", "엄마가 유치원 가면 사이좋게 놀라고 해서요."

인종에 대한 선호도의 근거의 응답 양상은 <표 Ⅴ-16>와 같다. 일치 조건 과제에 참여한 유아가 응답한 선호의 근거는 선호의 양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77, df=3,

p=n.s.). 이 과제에 참여한 유아 37명 중 35명(94.6%)이 한국인 사진과 한국어 음성 자료를 배치한 조합의 인물을 함께 놀고 싶은 친구로 선택하였다. 선호의 근거를 살펴보면 내집단 언어 사용이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인물 자극이 유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놀이 친구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외모(27.6%), 외모의 매력도(17.2%), 기타(1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남아인 사진과 영어 발화 자료를 배치한 조합의 인물을 놀이 친구로 선택한 유아는 2명(5.4%)이었고, 선호도의 근거는 외모의 매력도 1건(50.0%)과 기타 1건(50.0%)이었다.

불일치 조건 과제에 참여한 유아가 응답한 선호도의 근거 또한 선호도 양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0.90 df=4, p<.001). 이 과제에 참여한 유아 44명 중 24명(54.5%)이 한국인 사진과 영어 발화 자료를 배치한 조합의 인물을 놀이 친구로 선택하였다. 선호의 근거를 살펴보면 외모의 매력이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인물의 외모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놀이 친구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타(33.3%), 동일한 외모(11.1%), 영어에 대한 동경심(11.1%)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동남아인 사진과 한국어 발화 자료를 배치한 조합의 인물을 놀이 친구로 선택한 유아는 20명(45.5%)이었다. 선호의 근거를 살펴보면 동일한 언어 사용이 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인물 자극이 유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놀이 친구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기타(20.0%), 동일한 외모(13.3%)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16> 선호도에 대한 근거의 응답 빈도

	일치 조건		불일치 조건	
선택	내집단외모+ 내집단언어	외집단외모+ 외집단언어	내집단외모+ 외집단언어	외집단외모+ 내집단언어
선택 빈도	35(94.6)	2(5.4)	24(54.5)	20(45.5)
선택 근거				
동일한 언어 사용	13(44.8)	0(0.0)	0(0.0)	10(66.7)
동일한 외모	8(27.6)	0(0.0)	2(11.1)	2(13.3)
외모의 매력	5(17.2)	1(50.0)	8(44.4)	0(0.0)
영어에 대한 동경심	0(0.0)	0(0.0)	2(11.1)	0(0.0)
기타	3(10.3)	1(50.0)	6(33.3)	3(20.0)
계	29 (100.0)	2(100.0)	18 (100.0)	15(100.0)
χ^2 (*df*)	4.77 (3)		20.90 (4)***	

*** $p<.001$

인종에 대한 선호도의 양상과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일치 조건에서 대부분의 유아가 외모 및 언어가 모두 일치하는 인물을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익숙한 인물을 선호한다(Aboud & Amato, 2003; Allport, 1958)는 맥락에서 해석된다.

불일치 조건에서는 외모가 일치하는 인물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유아들은 인종 측면에서 동질적 환경에서 살면서 같은 인종적 신체 특징을 지닌 또래들과 놀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외모의 인물을 놀이 친구로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선호도의 근거로는 인종적 신체 특징 대신에 외모에 대한 매력이 더 자주 언급되었는데 이는 유아가 낯설지만 외모가 매력적인 또래와는 잠재적으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한 결과(Dion, 1973)가 있음을 고려할 때, 외모의 매력이 선호도 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불일치 조건에서 언어가 일치하는 인물을 선호하는 비율은 외모 일치 인물의 선호 비율보다는 낮으나, 45.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언어가 일치하는 인물을 선호한 유아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언급했다. 놀이는 상호작용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유아는 놀이 상대를 선택할 때, 사회적 관계를 맺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언어(Heller, 1987)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외국인거주자의 수가 증가하는 한국의 사회적 추세에서 동남아인에 초점을 맞춘 유아의 인종 태도 연구가 부족한 점에 주목하여,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태도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 자극의 개수 및 제시 순서의 조건별로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른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6곳의 3, 4, 5세 유아 89명을 대상으로 단일, 유사 및 대조 인물 자극에 대한 묘사 과제를 실시하여 유아가 동남아인에 대해 인종적 신체 특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를 통해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친구 선택 과제를 통해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수행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높은 연령의 유아일수록 동남아인을 보았을 때 인종적 신체 특징을 뚜렷하게 인식하였다. 한국인을 묘사할 때에는 3, 4, 5세 모두 머리카락의 형태나 길이, 얼굴 생김새 및 구성 요소, 옷의 색상이나 장식 요소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인을 묘사할 때는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일반적 신체 특징이나 옷을 언급하는 빈도는 감소하고 인종적 신체 특징을 언급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인종 인식의 발달에서 연령과 같

은 개인 내적인 성숙 요인이 작용함을 보여준다.

둘째, 인물 자극이 2명씩 제시되는 유사 및 대조 조건에서 두 인물이 모두 닮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이는 유사성에 대한 지각이 차이의 지각보다 어렵다(Markman, 1989)는 설명으로 이해된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남아인 2명이 서로 닮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사람들이 외집단 구성원간의 외양 차이를 민감하게 느끼지 못한다(Bartsch & Judd, 1993; Mullen & Hu, 1989; Park & Rothbart, 1982)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유아는 동남아인을 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동남아인 2명에 대해 외모가 닮았다고 평가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유아들이 동남아인 2명이 서로 닮았다는 근거로 피부색을 언급한 빈도와, 서로 닮지 않았다는 근거로 피부색을 언급한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만약 유아가 동남아인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외집단으로 여기는 태도가 나타난다면, 두 인물이 닮았다는 판단에서만 인종적 신체 특징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했을 것이다. 유사성보다 차이에 대한 인식이 더 쉽기 때문에 유아들은 두 인물이 다르다고 판단은 하였으나, 근거를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이전의 응답 내용과 상관없이 인물에 대한 인종적 신체 특징이 현저하게 지각되어 이를 언급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만으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에 한계가 있지만 한국인과 함께 제시되어 차이가 부각될 때에 동남아인의 인종적 신체 특징이 보다 현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다른 국가에서 수행된 유아의 인종 인식 연구와 비교를 통해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이 사회 맥락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적 담론으로 다루어졌던 미국에서는 유아들이 3-4세부터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한다(Porter, 1971; Rotheram & Phinney, 1987). 최근 20여 년 동안 급속히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 5세가 되어야 인종적 신

체 특징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Guerrero et al, 2011). 이 연구 대상인 한국 유아는 5세가 되어야 동남아인에 대한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 다른 국가의 유아보다 인식의 시기가 늦었다. 이는 비교적 최근 다문화사회화가 주요 사회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한 한국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인종적 신체 특징에서 개인 내적인 성숙 요인도 중요하지만 사회 상황도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문화권에 따른 차이는 유아의 인물 묘사에서 성별에 대한 언급 빈도에서도 발견되었다. 미국 유아를 대상으로 한 Semaj(1981)의 연구에서는 인물을 묘사할 때 유아가 성별을 언급한 비율이 36%-90%의 범위였다. 스페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 Guerrero 등(2011)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84.3%-100%가 인물을 묘사하면서 성별을 언급하였다. 이에 비해 이 연구의 유아가 성별을 언급한 비율은 0%-8.9%로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국가별로 유아가 자신을 설명할 때 성별을 언급한 비율이 달랐다는 결과(Lambert & Klinberg, 1967)와 같이 성별에 대한 언급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언어에 따른 차이로 볼 수도 있다. 영어나 스페인어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문법 체계에 성 정보가 입력(Sera et al., 2002)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을 지칭할 때 자연스럽게 성별이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적 신체 특징 관련 용어도 언어 체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물의 특성을 묘사할 때 해당 언어에 따른 차이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유아가 어떤 인물을 보고 내집단 구성원인지를 판단할 때 그 인물이 사용하는 언어가 중요한 단서였다. 유아는 시각 단서는 일치하나 언어 단서가 일치하지 않는 인물보다는 시각 단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택하였다. 선택의 근거로는 인물이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적 정보보다 언어가 집단 분류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Heller, 1987; Hirschfeld &

Gelman, 1997; Kinzler et al., 2007; Kurzban et al., 2001; Stangor & Langue, 1994)와 일치한다. 인종 집단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 차이에 주목하는 인지 과정이 아니라 집단에 내포된 사회적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한 Hirschfeld(1995)의 주장과 같이 이 연구에서도 유아는 지각적 요인에 따라 단순히 범주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인 언어에 집중하였다.

여섯째, 유아가 어떤 인물을 보고 놀고 싶은지를 판단할 때 그 인물의 외모가 중요한 단서였다. 유아는 언어 단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외모 단서가 일치하는 인물을 놀이 친구로 선택하였고 선택의 근거로 외모의 매력을 언급한 비율이 높았다. 연구 대상 유아가 인종 측면에서 동질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유아는 경험 상 한국 외모의 또래가 놀이 상대로 친숙하기 때문에 한국 인물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 인물이라도 언어가 일치하면 놀이 상대로 선호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동남아인에 대한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연령 및 인물 자극의 유사성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개인 내적인 특성을 가지며, 사회·문화권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언어가 내집단 범주화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통해 유아의 인종 집단에 대한 인식은 지각 수준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선호도에서 외모 단서의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통해, 내집단으로 수용된다고 하여 바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놀이 상대로 선호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어가 일치하는 경우에도 선호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므로 동남아 유아가 한국 유아에게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인물 자극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종 집단을 한국인과 동남아인에 한정해서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국인과 일본인 등의 동북아인, 백인과 흑인 등 인종적 신체 특징과 문화, 언어 등의 요인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거리감이 다양한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인이 큰 범주에서는 한국인과 같이 황인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종적 신체 특징에 보다 민감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인종적 신체 특징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에 따른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세부 요인을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외모 단서에서 인물의 매력도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매력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언어 단서도 유아에게 국가의 상징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수단으로도 의의를 지녔다. 후속 연구에서는 외모 및 언어 단서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 단서들이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외모의 여러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의 인물 사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어 제한된 인물 자극을 여러 가지 과제에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오염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사진 선정 절차에서 인종적 신체 특징을 비롯하여 인물의 신체적 조건이 동일한 사진을 여러 장 선택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과제에서 인물 자극 제시 순서를 단일, 유사 및 대조 조건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유아가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폈다는 방법론적인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인종 집단이 동시에 제공되거나 지시된 범주화 방법을 사용하여 인종적 신체 특징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동남아인이 단독으로 인식되는 경우와 한국인 또는 다른 동남아인과 나란히 제시되는 경우를 나누어 보았고, 개방적인 질문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유아가 인물을 묘사하도록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인물 자극의 선정 과정에서 사진의 선명도, 인물의 성별, 표정, 매력도와 인종적 신체 특징의 수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유아의 내집단 범주화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 외모 및 언어 단서에만 집중하도록 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태도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분리하여,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를 각각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내집단 범주화에서는 사회 구성원 자격을 찾는 인지적 과정으로 공유된 언어가 기준이 되었으나, 선호도는 개인적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정서적 과정으로, 외모가 유아에게 친숙한 인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구분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유아의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에서 언어가 중요함을 밝힘으로써, 외모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도 동남아인이 한국 유아에게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강철구(2002). 서론: 서양문명과 인종주의-이론적 접근. 강철구 외 7인 저. *서양문명과 인종주의* (pp. 11-45). 서울: 지식산업사.

국가법령정보센터(2011). *다문화가족지원법.* www.law.go.kr에서 2012년 6월 24일 인출.

김병조·김복수·서호철·오만석·은기수·정미랑·정재기·조동기(2011).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서현·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설동훈(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신현경(2007). *탐구중심 다문화 교육활동이 유아의 인종 편견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현정(2000). *개념과 범주화.* 서울: 아카넷.

심완정(2010). *다문화가 반영된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인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정진·차미영(2010). 다문화가정의 유아와 생활하는 유아교사들의 이야기. *동북아문화연구, 25,* 353-370.

이문정(2009). 유아의 인종에 대한 인식. *생태유아교육연구, 8*(3), 175-190.

이진희(1999). *프로젝트 접근법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활동이 유아의 인종 편견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영희 · 이숙재 · 김혜실 · 김정화(1999). 유아의 인종 인식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1), 95-110.

조용진(1999). *얼굴, 한국인의 낯.* 서울: 사계절출판사.

행정안전부(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Aboud, F. E. (1988). *Children and prejudice*. Oxford: Blackwell.

_____ . (2003). The fornation of in-group favoritism and out-group prejudice in young chidlren: are they distinct attitudes? *Developmental Psychology, 39,* 48-60.

_____ , & Amato, M. (2003). Developmental and socialization influences on intergroup bias. In R. Brown, & S. L. Gaet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ntergroup processes* (pp.65-88). Malden, Oxford, Carlton & Berlin: Blackwell Publishers Ltd.

Ackerman, J. M., Shapiro, J. R., Neuberg, S. L., Kendrick, D. T., Becker, D. V., Griskevicius, V., Maner, J. K., & Schaller, M. (2006). They all look the same to me (Unless they're angry): From out-group homogeneity to out-group heterogeneity. *Psychological Review, 17*(10), 836-840.

Alejandro-Wright, M. N. (1985). The child's conception of racial classification: a socio-cognitive developmental model. In M. B. Spencer, G. K. Brookins, & W. R. Allen (Eds.), *Beginnings: the social and affective development of black children* (pp.185-199).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Allport, G. W. (1958). *The nature of prejudice*. Garden City: Doubleday & Achor Books.

Bar-Tal, D. (1996). Development of social categories and stereotypes in early childhood: the case of "the Arab"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3/4), 341-370.

Bartsch, R. A., & Judd, C. M. (1993). 'Majority-minority status and perceived ingroup variability revisite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471-485.

Billig, M. & Tajfel, H. (1972). Social categorization and similarity in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27-51.

Blanck, P. D., Rosenthal, R., Snodgrass, S. E., DePaulo, B. M., & Zuckerman, M. (1981). Sex differences in eavesdropping on nonverbal cues: developmental chan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391-396.

Brauer, M. (2001). Intergroup perception in the social context: the effects of social status and group membership on perceived out-group homogeneity and ethnocentris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15-31.

Breckler, S. J. (1984). Empirical validation of affect, behaivor, and cognition as distinct components of attitud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6), 1191-1205.

_____, & Higgins, E. C. (1989). Chapter 16. On defining attitude and attitude theory: once more with feeling. In A. R. Pratkanis, S. J. Breck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pp. 407-428).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Bruner, J. S., Goodnow, J. J., & Austin, G. A. (1958). *A study of think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Cameron, J. A., Alvarez, J. M., Ruble, D. N., & Fuligni, A. J. (2001). Children's lay theories about ingroups and outgroups: reconceptualizing research on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2), 118-128.

Campanenlla, S., & Belin, P. (2007). Integrating face and voice in person percep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12), 535-543.

Clark, K. B., & Clark, M. K. (1939). The development of consciousness of self and the emergence of racial identity in Negro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4), 591-599.

_____ . (1940). Skin color as a factor in racial identification of negro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S.P.S.S.I. Bulletin, 11*, 159-169.

DeCasper, A. J., & Fifer, W. P. (1980). Of human bonding: New borns prefer their mothers' voices. *Science, 208*, 1174-1176.

Diesendruck, G., & HaLevi, H. (2006). The role of language, appearance, and culture in children's social category-based induction. *Child Development, 77*(3), 539-553.

Dion, K. K. (1973). Young children's stereotyping of facial attract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9*, 183-188.

Enesco, I., Guerrero, S., Callejas, C., & Solbes, I. (2008). Intergroup attitudes and reasoning about social exclusion in majority and minority children in Spain. In S. R. Levy, & M. Killen (Eds.), *Intergroup attitudes and relations in childhood through adulthood* (pp. 105-12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 Navarro, A., Paradela, I., & Guerrero, S. (2005). Stereotypes and beliefs about different ethnic groups in Spain. A study with Spanish and latin American chidlren living in Madri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6), 638-659.

Fiedler, K., & Schmid, J. (2003). How language contributes to

persistence of stereotypes as well as other, more general, intergroup issues. In R. Brown, & S. L. Gaert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ntergroup processes* (pp. 261-280). Malden, Oxford, Carlton & Berlin: Blackwell Publishing company.

Fiske, S. T., & Taylor, S. E. (1984). *Social cognition, from brains to culture*. McGraw-Hill. 신현정(옮김, 2010). *두뇌로부터 문화에 이르는 사회인지*. 서울: 박학사.

Freniere, P. L., Strayer, F. F., & Guathier, R. (1984). The emergence of same-sex affiliative preferences among preschool peers: a developmental/ethologic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5, 1958-1965.

Gelman, S. A. (2003). *The essential child: origins of essentialism in everyday though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uerrero, S. (2006). *El desarollo de la toma de conciencia racial: un estudio evolutivo con niños españoles de 3 a 5 años*. The Dissertation in the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Spain.

_____ , Enesco, I., & Lam, V. (2011). Racial awareness, affect and sorting abilities: A study with preschool children. *Anales de Psicología, 27*(3), 639-646.

Heller, M. (1987). The role of language in the foramtion of ethnic identity. In J. S. Phinney, & M. J. Rotheram (Eds.), *Children's ethnic socialization* (pp. 180-200).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Ltd.

Hirschfeld, L. A. (1995). Do children have a theory of race? *Cognition, 54,* 209-252.

_____ . (1998). *Race in the making: cognition, culture, and the child's construction of human kinds*. Cambridge: MIT Press.

_____ , & Gelman, S. A. (1997). What young children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variation and social difference. *Cognitive Development, 12*, 213-238.

Jahoda, G. (196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ideas about country and nationalit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3*(1), 47-60.

Katz, P. A. (1981). *Development of chidlren's racial awareness and intergroup attitudes*.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ERIC). www.eric.ed.gov에서 2012년 7월 20일 인출.

Kinzler, K. D., & Dautel, J. B. (2012). Chidlren's essentialist reasoning about language and race. *Developmental Science, 15*(1), 131-138.

_____ , Dupoux, E., & Spelke, E. S. (2007). The native language of social cogni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4*, 12577-12580.

_____ , Shutts, K., & Correll, J. (2010). Priorities in social categor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581-592.

_____ , Shutts, K., DeJesus, J., & Spelke, E. (2009). Accent trumps race in guiding children's social preferences. *Social Cognition, 27*, 623-634.

Kurzban, R., Tooby, J., & Cosmides, L. (2001). Can race be erased? Coalitional computation and social

categoriz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98,* 15387-15392.

Lam, V., Guerrero, S., Damree, N., & Enesco, I. (2011). Young children's racial awareness and affect and their perceptions about mother's racial affect in a multiracial contex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9*, 841-864.

Lambert, W. E., & Klineberg, O. (1967). *Children's views of foreign peoples: a cross-national study*. New York: Appleton Centry Crofts.

Langlois, J. H., & Downs, A. C. (1979). Peer relations as a function of physical attractiveness: the eye of the beholder or behavioral reality? *Child Development, 50*, 409-418.

_____ , Ritter, J. M., Roggman, L. A., & Vaughn, L. S. (1991). Facial diversity and infant preferences for attractive fa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79-84.

_____ , & Stephan, C. (1977).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thnicity on children's behavioral attributions and peer preferences. *Child Development, 48*, 1694-1698.

Loveman, M. (1999). Is "Race" Essentia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6), 891-898.

Markman, E. M. (1989). *Categorization and naming in children: problems of induction*. Cambridge: The MIT Press.

McGlothlin, H., & Killen, M. (2006). Intergroup attitudes of European American chidlren attending ethnically homogeneous schools. *Child Development, 77*(5),

1375-1386.

_____ . (2010). How social experience is related to children's intergroup attitud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625-634.

Mullen, B. & Hu, L. (1989). Perceptions of ingroup and outgroup variability: a meta-analytic integra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0*(3), 233-252.

Park, B., & Rothbart, M. (1982). Perception of out-group homogeneity and levels of social categorization: Memory for the subordinate attributes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051-1068.

Porter, J. D. R. (1971). *Black child, White child. The development of racial attitud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Ramsey, P. G. (1991). Young chidlren's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social class differenc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2*, 71-82.

_____ , & Myers, L. C. (1990). Salience of race in young children's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responses to social environm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1*, 49-67.

Rotheram, M. J., & Phinney, J. S. (1987). Introduction: definitions and perspectives in the study of children's ethnic socialization. In J. S. Phinney & M. J. Rotheram (Eds.), *Children's Ethnic socialization: Pluralism and development* (pp. 10-31),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Inc.

Sangrigoli, S., & Schonen, S. (2004). Recognition of own-race and other-race faces by three-month-old infa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7), 1219-1227.

Semaj, L. T. (1981). The development of racial classification abilities. *Journal of Negro Education, 50*, 41-47.

Sera, M. D., Elieff, C., Forbes, J., Burch, M. C., & Rodriguez, W. (2002). When language affects cognition and when it does not: an analysis of grammatical gender and class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1*(3), 377-397.

Signorella, M. L., Bigler, R. S., & Liben, L. S. (1993).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hildren's gender schemata about others: a meta-analytic review. *Developmental Review, 13*, 147-183.

Singleton, L. C., & Asher, S. R. (1977). Peer preferences and social interaction among third-grade children in an integrated school distri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4), 330-336.

Shutts, K., Kinzler, K. D., McKee, C. B., & Spelke, E. S. (2009). Social information guides infants' selection of food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0*(1-2), 1-17.

Stangor, C., & Lange, J. (1994). Mental representations of social groups: Advances in understanding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6, pp. 357-416). San Diego: Academic Press).

Taylor, P. C. (2004). *Race: A philosophical introduction(1st)*. Blackwell Publishers Ltd. 강준호(옮김, 2006). *인종: 철학적 입문*. 파주: 서광사.

Tropp, L. R. & Wright, S. C. (2003). Evaluations and perceptions of self, ingroup, and outgroup: comparisons between Mexican-American and European-American children. *Self and Identity, 2*, 203-221.

Turner, J. C. (1982). Social categorization processes and group behaviour. In H. Tajfel (Ed.),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pp. 28-3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lton, G. E., Bower, N. J. A., & Bower, T. G. R. (1992). Recognition of familiar faces by newborn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5*(2), 265-269.

Zajonc, R. B. (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2), 151-175.

Zakin, D. F. (1983). Physical attractiveness, sociability, athletic ability, and children's preference for their peers. *The Journal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115*(1), 117-122.

<부록 > 응답 기록지

No._____ 날짜: 2012년 1월 일

응답 기록지

기관명	학급명	생년월일	이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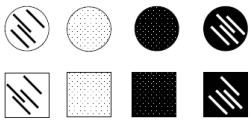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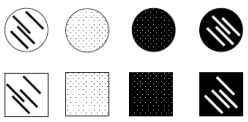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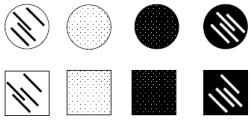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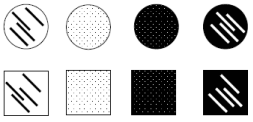
1. 인물 묘사 과제

구분	자극	유사/차이 여부	응답 근거
단일 자극 1	한국 유아 1명	-	
단일 자극 2	동남아 유아 1명	-	
유사 자극 1	한국 유아 2명	닮음 / 닮지 않음	
유사 자극 2	동남아 유아 2명	닮음 / 닮지 않음	
대조 자극	한국 유아 1명 & 동남아 유아 1명	닮음 / 닮지 않음	

3. 내집단 범주화 & 4. 선호도 (일치조건 / 불일치조건)

내집단 범주화		이유	사회적 선호도		이유
한국	동남아		한국	동남아	

4. 기하학적 도형 분류 과제

	집단 1	집단 2
1차 분류		
코딩	논리적 / 비논리적 or 기준 없음 / 분류 못함	
	집단 1	집단 2
2차 분류		
코딩	논리적 / 비논리적 or 기준 없음 / 분류 못함	

Abstract

Children's Awareness of Racial Features, Racial In-group Classification, and Racial Preference

Lee, Jungmin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1) examine children's awareness of racial features in different stimuli conditions, (2) investigate children's racial in-group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appearance cue and the language cue and (3) investigate children's racial preference according to the appearance cue and the language cue.

Study participants were 89 children aged 3-5 years from 6 child-care centers in Seoul and Gyong-gi province. The children performed photograph description test, respectively for 1 Korean figure, 1 South-Asian figure, 2 Korean figures, 2 South-Asian figures and 1 Korean and 1 South-Korean figure. Next, they watched 1 Korean and 1 South-Asian presented on a computer screen. On the agreement condition, children watched the Korean figure talking in Korean language, and the South-Asian figure talking in English. Then the children were asked to select of which the two figures seemed like Korean. Consequently, children were asked to select with whom they want to play.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percent and χ^2

test.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Older children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n younger children to use racial feature and less likely to use general physical feature to describe the stimuli, in the condition of 1 South-Asian, 2 South-Asians and 1 Korean and 1 South-Asian.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in-group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the appearance cue and the language cue. Children tended to select the South-Asian figure talking in Korean language as a Korean, rather than the Korean figure talking in English. For the justification of their reply, children mentioned the 'usage of same language' most frequently.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preference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the appearance cue and the language cue. Children tended to select the figure of Korean appearance talking in English as a playmate, rather than the figure of South-Asian appearance taking in Korean language. For the justification of their reply, children mentioned the 'attractiveness of the person' most frequently.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children's awareness of racial feature differs by their age and the conditions of single, similar and contrast condition of the stimuli.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rrespondence of language plays an important role on the children's in-group classification whereas the correspondence of appea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on the children's preference.

Key words: awareness of racial features, racial in-group classification, racial preference, language
Student Number: 2008-23222